

寒岡 鄭述의 敎學 思想

丁 淳 陸

目	次
I. 寒岡의 敎育生涯評釋	2. 做人
1. 時代	III. 寒岡의 敎學方法論
2. 修學	1. 敎學方法의 原理
3. 退溪와 南冥과의 만남	2. 敎學方法의 節次
4. 講學	3. 敎學方法의 內容
II. 寒岡의 敎學目的論	IV. 맺는 말
1. 敬義	

I. 寒岡의 敎育生涯評釋

1. 時 代

寒岡 鄭述(1543~1620, 中宗38~光海12)는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士林派 官人學者이면서 哲人敎育者이다. 그는 燕中祖에 있었던 네 차례의 「사화기」가 끝날 무렵에 태어나서 사림파가 정치적인 안정 기반을 구축한 후 자체적인 분열 현상이 노중되기 시작하던 「당쟁기」 초기에 그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으며 임진왜란과 같은 역사상 미증유의 전란을 몸소 겪은 격동기의 인물이다.

寒岡의 출생 전야는 사림파의 정치적인 몰락 시기였으며 權臣·戚臣들이 발호하던 때였다. 연산군 때는 戊午·甲子의 사화가 있었고 중종 반정 뒤에는 趙光祖 일파에 의한 至治主義의 도학 정치가 이루어지는 듯 싶더니 그들의 성급한 이상주의가 좌절되고 드디어 己卯士禍를 겪고나서 南袞·沈貞·金安老 등 이른바 權奸들의 柄權이 있었으며 尹元老·元衡·형제와 尹任 같은 戚臣들의 권력 압투 내지 弄權이 계속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조 전기부터 기반을 다져온 성리학적 도통연원은 在地의 세력으로 잠복하기에 이르렀고 백 여년간 지속되어온 昇平期는 그 종언을 고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殘命을 도생한 士林들은 관계 진출을 단념하고 재야학자로 은거하여 후진을 교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중종 말년에 權臣 金安老가 실각하면서 金安國·李彥迪 등이 叙用되고 기묘 사화에 연루되었던 다수의 士類들이 다시 중앙 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를 전후하여 李滉도 차츰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약 50년 간에 걸친 [燕山 4년(1498)~明宗元年(1545)] 네 차례의 커다란 사화는 일견 사림파의 氣息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듯 하였으나 모진 시련을 거치면 거칠수록 사림파의 지위는 역설적으로 더욱 공고하여졌고 마침내 훈구파 대 사림파의 정세는 역전하게 되어 士林政治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 다져놓은 在地的 기반은 宣祖朝 국난기에 크게 쓰일 후진 학자들을 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였다. 寒岡이 출생한 중종 38년은 周世鵬에 의하여 順興에 白雲洞書院이 세워진 해이다. 書院의 창설은 이러한 士林의 재지적 기반을 무시하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었다.¹⁾ 더구나 寒岡의 출생은 사림과 형성의 실질적인 開山祖라고 할 수 있는 寒暄堂 金宏弼과 땀 수 없는 관련이 있다. 한강의 조부(應祥: 司憲府監察)는 한원당 문하에서 수업하고 마침내 그 사위가 되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그의 부친(恩中: 忠佐衛副司猛)이 率居 落南하여 처음에는 외가인 玄風 率禮村에 살다가 뒤에 星州李씨를娶하여 星州 沙月村(사도실)에 정착하였다. 따라서 '東方五賢'의 首賢인 한원당은 한강의 先外曾祖父가 된다.²⁾ 뒷 날 퇴계는 龜巖 李植에게 보낸 편지에서 「曾見鄭崑壽及其弟述 皆志居好善之士 寒暄外孫 豈無餘風耶」라고 한 것은³⁾ 바로 김굉필의 학통과 혈통이 한강에게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寒岡이 나이 7세 때 官人이 도포에 두르는 紅絲帶를 하고서 집에 오는 손님을 맞이하였는데, 손님이 회통삼아 묻기를 “그대의 벼슬이 무엇인가?” 하니 소년 한강은 태연히 답하기를 “나는 여러 대를 걸친 公卿자손으로써 마땅히 金衣緋를 둘러야 겠으나 짐짓 이렇게 한 것이라” 하였으며 伯氏(適)가 어리석다고 꾸짖었으나 그에게는 堯舜과 같은 기상이 있노라 하였다. 이를 두고 「年譜」에서도 「天資豪邁・志氣遠大・色辭之間・英彩發越」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소년 寒岡의 높은 自我同一視意識과 성취동기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소년기의 이러한 성취 동기는 학문과 더불어 <立志>라는 형태로 내면화되고 또 자아실현이라는 삶의 공간을 확충하기도 한다. 사람됨의 길에서 「八歲・入學」은 이러한 자아조절의 한 시험대이기도 하였다.

2. 修 學

寒岡은 9세 때 父喪을 당하고 문득 「志于學」하여 「發憤讀書」하였다. 伯氏가 이때 그에게 내린 「忠告」(伯氏嘗泣而語曰 先君在世時 慮爾失業 常以爲憂 汝其勉之 先生惕然感奮 自力不怠)는⁴⁾ 한강 일생에 있어서 첫번째의 한 「시험대」로 보여진다. 삶의 실존적

1) 丁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嶺大出版部, 1979. 참조.

2) 張顯光撰, 「寒岡鄭先生行狀」, (承旨公受業于寒暄堂金先生之門 金先生愛其志行 妻之以女 公遂月 薰習 益樹其家庭之訓 判書公天資寬曠不設畦畛 人謂之不失赤子之心 其孝友至行 實有人所難及者 以寒暄夫人朴氏在玄風率禮村 公既孤奉母夫人 自京來寧仍留居其側 及公娶于星州 則州亦文獻之鄉 故遂居焉 卽州南南山里沙月村也)

3) 寒岡全書(下), 景仁文化社(影印本) (이하 <全書>라 표시함), 「年譜」 p. 227.

4) 寒岡의 말형 適은 早逝하였으나, 한강의 소년기에 있어서 훌륭한 스승이었다. 年譜에 「先生早喪先君子 與伯氏參贊公奉母夫人以居 伯氏亦好義樂善之士也 入行孝弟 出事問學 質之於師 資之於兄 文行漸進 齊聲嘆服」(文緯)이라고 적혀 있다.

자각은 삶의 ‘방향’을 끝맺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충고자의 人間的權威와 충고를 받아 드리는 자의 내적 갈등이 한가지 志向性으로 통일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강은 열살이 되도록 집안에서 「失業」하지 않을까 「憂慮」하였으나 한강은 ‘잃어버린 것을 새로운 출발점에서 회복’ 하려는⁵⁾ 忠告를 결단성 있게 받아 드렸다. 충고는 자기 작성과 결부될 때 적당한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소홀히 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한 유도체로서 伯氏의 충고는 교육적인 힘을 발휘하였다.

13세 때 ‘첫 스승’과의 만남(Begegnung)이 이루어진다. 德溪 吳健이 바로 그다. 그는 당시 州學의 敎授官이었다. 德溪는 일찌기 南冥 曹植의 高弟이고 퇴계 문하에도 출입한 석학이다. 이는 실로 한강에게 있어서는 ‘은혜’(Gnade)라고 할 수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스승 없는, 아니 스승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이 사람됨이 이루어지는 일은 힘든다. 한편 좋은 제자 없이 훌륭한 스승이 기억되는 일 또한 어렵다.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을 「서로 만남」(sich-Begegnung)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 스승」(initiator)의 교육적 의미는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구실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첫 스승과의 만남은 운명적이라고 까지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다—(찾는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⁶⁾

寒岡은 10세 전에 이미 大學·論語를 읽었으므로⁷⁾ 12세 때는 선생의 가르침이 없이 通鑑을 독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지식인이 되었다. 吳德溪에게 처음 배운 것은 교과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易」의 乾坤 兩卦였다. 「就學易傳 纔讀乾坤二卦 餘皆推類而通透無碍」(年譜)하였더니 그 당시 소년 한강의 지적 수준은 이미 크게 이루어진 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도의 受學者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길은 지식이 아니라 人格과의 邂逅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德溪人格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성공적이었으므로 그를 生平의 스승으로 길이 숭앙하게 되었으며(「挽德溪吳先生」: 收餘芳兮 佩服終身世) 덕계 또한 한강과의 첫 대면에서 「英才大器 必將出爲世用」이라고 推許하여 마지 않았던 것이다.

「先生自妙齡 篤志勵行 以聖賢自期 受學於師 晷刻不自放過 文理日通 辭義日達 德溪令諸生作七夕辨 先生即呼裏德秀 而書之 口號不停 言皆正大 德溪大加稱嘆曰 非徒文辭出群 器識亦已超人 他日所就 必非凡輩所及」⁸⁾

15세 시(明宗 12년 1557)에 「醉生夢死嘆」이라는 32節句를 지었는데, 이 시는 宇宙와 人生을 논한 한편의 哲學詩이고 立志大期の 교육적 自警文이라 할 수 있다.

5) O. F. Bollnow, Existenzphilosophie und Pädagogik, (이규호역 「實存哲學과 敎育」 培英社 pp. 62~79. 참조.

6) 위의 책, (pp. 105~124.) 참조.

7) 年譜, 〈讀書〉, (先生年纔七八已受大學論語等書 觸處洞然—崔恒慶)

8) 年譜, 〈學問〉, 一文緯.

「천명을 아름답게 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음 하나로 모든 착함을 주저하니
 그 마음쓰임 妙用하여 虛靈함을 알겠네.
 천지의 오묘한 이치 속에 사람됨의 길 다하며
 힘써 이룩한 다음에야 마음의 경화로우 있으리라.
 어찌타 헛된 삶으로
 꿈이런듯 취한듯 한 세상을 보내랴.
 아침 나절 덧 없이 지워보내듯
 삭없이 지내는 소년 시절 가련하구나.
 거치고 탐욕스러운 마음 四端을 해치고
 食色에만 맛드리는 삶 七情을 더럽히며
 良心, 솟아나려니 私己가 움직이고
 正念, 일어나려니 邪心이 먼저 생기네.
 슬프고나! 사랑이 짝막혀 한 줄기 햇별도 없이
 취한듯 꿈이런듯 헛된 삶이여
 三綱은 이즈러지고 九法 또한 무너지는데
 한 세상을 귀머거리 장님으로만 보낼거나
 하늘로부터 품부받은 이 한몸이
 길 잘못들어 빈 구렁텅이로 떨어지네
 그렇지만 천지의 기운을 이어받은 들
 좋은 열매맺음을 바라노니
 삶의 뜻은 貞함에 있고
 마음의 주인으로 불러일으키는 길이 어이
 없을 소냐.
 단단히 마음을 가다듬어 혼탁한 흐름을
 맑게 하련다.
 마음의 三軍을 호령하는 길이 다만 文字 위에
 있지 않나니
 天君(마음)의 바른 길은 明誠함을 바라고
 敬과 義를 함께 지나는 것이
 일상의 삶 속에 있으니
 아래부터 차근히 힘쓰노라면
 明德은 밝혀지리라.
 이렇듯 하루 아침에 꿰뚫어 보았거니
 부끄럼 형제 비오니
 세월의 덧없음이 오히려 안타깝고
 하늘과 땅을 俯仰하니 홀로
 갈길이 아득함을 근심하네.」(의역)⁹⁾

(受命當年得其秀 形肖上下人其名 一箇靈臺主萬善
 妙用獨處知虛靈 通神知化立人極 踐形然後能順寧

如何放倒一種人 迷老醉夢終不醒 朝晝所爲致怙亡
可憐生意無由萌 食殘暴慢賊四端 食色臭味淪七情
良心發處私已動 正念起時邪先生 堪嗟十塞無一曝
醉邪夢邪長昏瞶 三綱既淪九法敦 偃偃百年甘鴆盲
自將皇天付車身 橫填迷路立墜坑 雖然一脈尚頑果
生意所以根於貞 喚醒主人豈無道 寸膠可使黃流清
三軍旗脚勿字上 天君正理要明誠 敬義夾持動靜間
下梢遂使明德明 依然一朝透覺關 得見爺孃與弟兄
却怕天日已遲暮 俯仰獨立愁前程)

위의 詩는 栗谷이 19세 때 지은 「自警文」과 雙璧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숙한 天才性이 번뜩이는 작품이라고 보겠거니와,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 때 한강은 이미 眞西山「心經」의 大意를 要得한 소년 철학자의 경지에 다다른 듯 하다. 6년 뒤 한강이 21세 때에(1563) 처음으로 퇴계선생을 찾았다. 다시 2년 뒤인 23세 시에 퇴계선생에게 「心經」에 관한 것을 質正하였는데 寒岡의 성리학적 우주인성론의 체계는 15.6세에 이미 확립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醉生夢死嘆」은 「心經」의 讀後感 또는 그 책으로 말미암은 일종의 「發心願」이라고 보여진다.

3. 退溪와 南冥과의 만남

한강은 행복스러운 學人이었다. 퇴계와 남명과 같은 鴻儒碩德을 한꺼번에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寒岡에게만 행운이 아니라 퇴계와 남명에게 있어서도 慶福이었다.

되날 宣祖가 布衣의 선비인 한강을 昌寧縣監으로 제수하고(37세시, 1579) 退溪와 南冥 두 사람의 기상이 어떻드냐는 물음에 대답하기를

「李滉 德器渾厚, 踐履篤實, 工夫純熟 階級分明 學者易以尋入, 曹植 器局峻整 才氣豪邁 超然自得 特立獨行 學者難以爲要」

라고 적절히 평가하였거니와 寒岡은 두 스승의 長處를 고르게 물려받아 敬義夾持의 조화로운 人間像을 마음속에 일찍부터 아로새길 수 있었다. 한강이 퇴계를 처음이자 마지막 담으로 배알한 것은 그의 나이 21세였다. 이때 퇴계는 이미 朝野가 泰斗로 추앙하던 63세의 老大家였다.¹⁰⁾ 청년학자와 元老耆宿간의 첫 대면은 그해의 봄날이었듯이 春風이 감도는 장면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 寒岡은 퇴계로부터 「爲學次第之方」(교육방법)을 듣고 비로소 지난날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爲學所定之處」(교육목적)를 터득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더욱 멀리하여 학문의 발전이 날로 확충되었다는 것이다.

(「年譜」-癸亥春先生 拜退溪先生 質以所疑 李先生語以聖門爲學次第之方 於是始覺前日所向之

10) 이 무렵 退溪는 奇高齋과의 四七論辯을 전개하는 중이었고 庚申年(1560)에는 陶山書堂이 낙성되어 본격적으로 研鑽講學 생활을 펼칠 때이다. 그러므로 寒岡이 퇴계를 拜謁한 곳은 陶山書堂이었을 것이다.

未有所定 而向裏鞭策 規模日廣 事業日弘)一(文緯)

퇴계는 그를 보내고 ‘寒暄外孫豈無餘風’이리오하고 한 말은 범연한 傳言만이 아닐 것이다. 그 해 가을에 進士試에 합격을 하고 겨울에 혼인(光州李氏)을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會試에 나아갔으나 「不入禮闈而歸」하고야 만다. 한강이 과거를 포기한 것은 단순히 「尹和靖의 故事」¹¹⁾를 본따 것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당시의 무상한 窶路의 작태를 직시하였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退溪人格을 접하고 나서 感發된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퇴계와의 첫 대면이 있고나서 두 해 뒤에 한강은 퇴계에게 心經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自是以後 不惟躬自往來 其修牘質問者亦且相續」(年譜)이라 하였다. 이때는 서면으로 問目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퇴계를 직접 「拜」¹²⁾한 것은 두해전(癸亥年)에 仲兄 崑壽와 함께한 「하루 동안」이 그 전부였다. 그리고 한강이 南冥의 門을 두드린 것은 다시 그 두해 뒤인(1566) 24세 시였다. 이 때 남명은 「士君子大節 惟在出處 汝於出處粗有見得 吾心許之也」(年譜)라고 하여 夙成한 한강의 ‘出處大節’을 印許하였다. 연보에 의하면, 退溪·南冥과의 〈단 한번만〉의 만남 이후로 이들 師弟 간의 對面教育은 없었던 듯 하다. 불과 몇 해 지나지 않아서 퇴계(1570)와 남명(1572)은 易簣하였으며, 다시 2년 뒤(1574)에는 德溪 또한 捐館하였으므로 한강의 수업시대는 사실상 28세에 막을 내리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옛 선비의 師弟관계가 단순히 執贊(弟子禮를 통한 執經受業)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면이 없는 서한교육(問目)만으로도 사제 관계는 성립될 수 있었으며, 단 한번의 「禮訪」으로도 가능하였다. 오직 師弟同行 이라는 ‘서로 만남’ 속에서 心許하여 종평생 〈事之〉·〈私淑〉하는 실질적 관계도 존재한다. 그들은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세계 안에서 서로 만났지만, 서로 같은 이해와 가치평가를 지닐 수 있었으며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참다운 자기실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만남은 인격적인 독립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이다.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의 사건은 운명적이고 돌발적인 하나의 「사건」이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가 만남에 이르도록 하는 매개자이기도 하고 또한 제자는 바로 그러한 매개자로서의 스승 자신과 만난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 사이에 참다운 만남이 일어나려면 스승은 스승임을 그치고 제자는 제자임을 그치는 限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¹³⁾

11) 宋나라 尹樸, 程伊川의 門人으로 終身 과거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임금이 여러번 불러도 응하지 않다가 宋나라 紹興 初에 師道로 천거되어 崇政殿 說書兼侍講이 되었다. (宋史·428)

寒岡年譜에는 이 때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先生年二十二 得鄉貢初試時 先生志學甚篤 絕意外慕 赴京師不見會試 而還自是以後 益加堅苦刻厲力之工 雖燕居之時 未嘗脫上衣 亦未嘗施脩容 必夜深而寐 鷄鳴而起 終日危坐 講讀不輟)。

12) 宣祖와의 문답에서 한강은 퇴계와 남명에게 각기 「執經受業則未也」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책이나 지식을 통한 사제 관계는 없었다는 뜻이고 道學淵源에서의 사제의 分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13) O.F. Bollnow, 앞의 책, (pp.124~136) 참조.

寒岡은 뒷날 퇴계를 추모하면서 「述也小生早及門提掖之厚 敢忘隆恩 惟其魯莽 白首無憑 顧省慙悼」라고 술회하였거니와¹⁴⁾ 「祭南冥曹先生文」에서는

「嗚呼 念我小生蓋自十五六歲時 始得聞先生之風 而知欽慕之 而癡騷貧遠 無以自達於階庭之下 徒塵星斗之仰 未待春風之座者 殆將十年束脩之 將曰自丙寅之春 而幸先生之不鄙棄之 而收而置之 弟子之列 而又復以爲可教 而每許以義分相與之地」¹⁵⁾

라는 사제의 인연을 술회 하였다.

師弟간의 탁월한 도학적 傳承關係를 道統淵源이라고 한다.¹⁶⁾ 뒷날 寒岡이 「陶山嫡傳」으로서 한국 성리학의 道統을 이어받게 된 내력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退·南 兩門에 出入하면서 뒤에 오직 퇴계의 학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된 것은 南冥 문하에서의 同門인 鄭仁弘의 정치적 항배와 관련된다.¹⁷⁾ 鄭仁弘은 뒷날 寒岡이 南冥에게 「背師」하였다고 까지 하였으며 寒岡은 이 말을 듣고서 남명을 존경하기로는 나보다 머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年譜：邊人(指仁弘) 誓先生以不尊尚南冥 至以背師目之 先生聞之曰 莫如我敬先生) — (褒尚龍). 퇴계와 남명은 同庚으로 서로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文通으로 相愛相敬하였다. 그러나 宣祖 37년(1604)에 李彥迪을 비판한 남명의 글과 퇴계를 비판한 정인홍의 글이 담긴 「南冥集」이 정인홍에 의하여 발간되자 退·南 양 문도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光海君 2년(1610)에 회재·퇴계가 포함된 「東方五賢」의 文廟從祀에서 정인홍은 그의 스승 南冥이 빠진 것을 분개한 나머지 회재와 퇴계를 비방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었는데 館學儒生은 靑襟錄에서 정인홍의 이름을 삭제하였고 마침내 仁祖反政 후 그가 정치적인 패퇴를 하여 역적으로 按律되자 南冥學派의 수난은 가중되었다. 이렇게 볼 때 寒岡의 南冥에 대한 崇慕는 정인홍의 정치적 야심으로 인하여 무색하여진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한강은 남명의 인품과 학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최매의 찬사를 바쳤으며, 鄭이 그를 「背師」하였다고 할때도 그 사정은 後生이 알 수 없는 일이다.(言行錄) 할 뿐이었다.¹⁸⁾

「아, 선생은 天地의 純剛한 덕과 河嶽의 淸淑한 精氣를 타고 났으며, 재주는 일세에 높고 기개는 千古를 덮으며 지혜는 죽히 천하의 변화를 통하고 용명은 능히 三軍의 元帥를 앗을 수 있으며, 泰山壁立의 기상과 鳳凰이 高翔하는 이상을 지녔도다. 빛나기는 산봉우리의 구슬과 같고 맑기로는 물 위에 뜬 달 같도다. 내가 보기로는 이런 분은 등방에 밀찌기 없던 인절일시 분명토다.」¹⁹⁾

14) <全集> 卷12, 「祭退溪李先生墓文」, pp. 226~7.

15) 위의 글, p. 207.

16) 丁淳睦, 道統論, 「朝鮮時代의 教育名著巡禮」, 培英社, 1985(교육신서 No. 128)

17) 李樹健, 「南冥曹植과 南冥學派」, 民族文化(제2·3집), 嶺大民族文化研究所, 1982. 참조.

18) 위의 글, p. 189.

19) <全書>, (上), 「祭南冥曹先生文」, (嗚呼先生稟天地純剛之德 鍾河嶽淸淑之精 才高一世氣蓋千古 知足以通天下之變 勇足以奪三軍之帥 有泰山壁立之像 有鳳凰高翔之趣 璨如峯頭之玉 灝灝如水面之月 自我而觀之 宜其爲振東方未有之人豪矣).

그러나 南冥의 高弟²⁰⁾였던 寒岡이 정인홍으로 인한 남명학파의 몰락과 더불어 「退溪門下三傑」이²¹⁾ 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志趣上的 상근성과 學問上的 공통성이 크게 작용한다. (이에 대하여는 「教學方法論」에서 다시 상론한다). 다만 이곳에서 강조 하는 것은 후세의 평가나 同輩들의 주장이 아닌 한강 자신이 취한 南冥觀이다. 그는 시종 충실한 南冥門人이었고 그 學恩에 감사하는 門徒였다.

4. 講 學

寒岡의 학문 수업은 거의 「無由師」의 자력 학습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21세 시 퇴계와의 「하루의 만남」 이후 「如覺前日所向之未有所定」의 상태에서 「覺醒」하여 (연보에는 「向裏鞭策」이라 함)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연보에 「規模日廣 事業日弘」이라 함) 스스로를 끌어올렸다. 이 때의 '깨달음'은 스승과 제자와의 공동제작이다.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의 準備度(readiness) 여하에 의하여 촉발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

Spranger는 인간의 내적 세계의 각성은 「인간형성의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次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면으로 보면 퇴계는 교육적 각성의 高手였다. 그는 한번도 자신을 스승이라고 자부한 적이 없었다. 제자가 스스로를 洞察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의 전 인생관적 전회를 도와 주었다. 그러하였기에 寒岡과 退溪는 「함께 哲學하는」(Sym-philosophieren) 同道의 知己일 수 있었다.

28세에 일단의 형식적인 수업시대를 끝내고, 寒岡은 마침내 한 시대의 師表로서의 책임을 세상에 맡겨 된다.

31세 시(宣祖 6, 1573) 평생의 道友 東岡 金宇頤이 「山野操行之士」의 천거로 禮賓寺 參奉를 제수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고²²⁾ 「寒岡精舍」를 세워 講學의 첫 考槃으로 삼았다. 이곳에서 그는 퇴계의 「朱子書節要」의 總目을 撰하는 한편 「家禮集覽補註」를 간행하고 (1573) 「寒喧堂年譜及師友錄」을 撰하였다. (1575)

그 뒤, 健元陵 參奉(1575)→司圖署 司圖(1578)→宗簿寺 主簿(")→三嘉縣監(")→

20) 南冥은 61세 때 兎洞에서 晉州 德山の 絲綸洞으로 옮겨 「山天齋」를 짓고 후생과 함께 講學論道 하였는데 이 때 金沔·鄭琢·金宇頤(外孫婿)·崔永慶·金孝元 등이 來學하였으며, 67세 때 明宗에 이어 宣祖가 즉위하고 나라에서 여러번 불렀으나 남명은 「戊辰封事」를 올렸다. 이 때를 전후하여 鄭述·崔滉·俞大修·鄭再祐 등이 負笈하였다. 이들 뛰어난 제자 가운데서 南冥은 鄭仁弘 金宇頤를 더욱 촉망하였다. 남명은 늘상 「방울」과 「칼」을 지니면서 「喚醒·警昏」의 具로 하였는데 이 두 물건을 鄭과 金에게 주어 「傳心」한다 하였다. (植常佩鈴喚醒 拄劍警昏 末年以鈴與金宇頤 以劍與仁弘曰 以此傳心—「宣祖實錄」)

위 南冥門徒 가운데 金沔·鄭琢·金宇頤·金孝元 등은 寒岡과 마찬가지로 退溪의 門下이기도 하다. 〈鄭仁弘事〉이전에는 이처럼 退·南門人은 交遊自在하였다.

21) 世稱「三傑」이라 하는 분은 金誠一·柳成龍·鄭述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學行도 卓絶하였을 뿐 아니라 뒷날 그를 門徒들의 淵源이 번창하여 자기 퇴계학파의 一大門戶를 열었기 때문이다.

22) 年譜: 「宣祖命擢 山野操行之士 金東岡以修撰入侍 啓曰 鄭述曾從李滉學又嘗往來曹植之門 學問通明 才局有裕 當令以布衣入對訪問然後 授之以爵 可也」

23) 「寒岡」의 유래는 「寒」을 「朱子寒泉之義」와 논어의 「歲寒松柏之義」에서 취하고 「岡」은 「岡在蒼坪山先隴西麓」에서 따와서 寒岡이라 하였다. 그리고 혹은 〈寒〉의 含義에 先外曾祖父 「寒喧堂」의 〈寒〉을 아울러 雙用코자 한지도 모른다.

知禮縣監(1579) 등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모두 不赴하였고 學徒를 모아 小學을 강의하기 시작하였다. (1579 : 37세) 이것이 그의 첫 교육활동이다. 교과과정으로 小學을 택하게 된 것 역시 평생 「小學童子」로 자처한 한훤당의 遺風임을 짐작할 수 있다.

38세 시(1580)에 비로소 昌寧縣監으로 出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 宣祖가引見하고 물은 퇴계·남명의 인품·학문의 비교는 진술한 바와 같다. 栗谷 李珥는 그의 經筵日記에서 선조와 한강과의 첫 대면을 이렇게 전한다.

「鄭述로 昌寧縣監을 삼았다. 述는 예학에 힘써서 몸단속을 심히 엄하게 하며 외론이 英發하고 淸名이 날로 드러났다. 여러번 벼슬을 시켜도 나서지 아니하며니 이번엔 상경하여 拜命하였다. 上이 불러보시고 배운 것을 물어보시되 天語가 온순하시니 듣는 사람이 감격하였다. 述가 이에 부임하였다.」²⁴⁾

寒岡은 그 해 潤 4월에 부임하여 四境에 「書齋」를 세우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文廟에 알성하는 한편 諸生에게 義理를 강하고 효자 열부의 정려를 개축하였으며 鄕射·鄕飲·養老禮를 행하였다. 그가 벼슬은 버리고 돌아가자 백성들은 生祠를 지어 길이 칭송하였다. 그리고 郡誌「昌山志」를 간행하였는데 이것은 이후 지방관 재임시에는 빠짐없이 수행한 鄕土誌發刊 사업의 시발이었다. 한강이 지방 수령으로서 첫 번째로 착수하고 가장 중요시한 사업은 守令七事에 있어서 〈興學〉이었으므로, 그를 教學守令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41세 시(1583)에는 강원도·충청도의 都事에 拜하였으나 不赴하고 내직으로 풍조정랑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역시 不就하였고 문하생들과 더불어 「月朔講會稷」를 만들고 檜淵草堂을 세워 棲息의 장소로 하였으며 유명한 「百梅園」을 마련하였다. 「小小山前小小家, 滿園梅菊逐年加, 更教雲水粧如畫, 舉世生涯我最奢」라는 百梅園詩는 자연을 벗삼은 자신의 생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럽다는 「三公不換此江山」의 심경을 여실히 나타낸다.

47세 때(1589) 來學者들에게 心經을 강의하고 이듬해에는 近思錄을 講하였다. 31세 때 寒岡精舍에서 겸손하게 小學을 강하던 한강이 이제 老成한 학자로 추앙되어 내학자들이 그 문하에 雲集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학적인 수준은 당시 성리학적 학문세계의 최고봉을 유지하는 무리들이었다. 따라서 檜淵草堂은 40여년 전 陶山書堂에서 퇴계가 講席을 차린 것과 彷彿한 私學 아카데미즘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였다. (檜淵及門錄 참조)

50세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한강의 仲氏(出系) 西川君 崑壽는 壬亂의 元勳이 되었으며 그 자신도 강원도 관찰사 등으로 분골쇄신 하였다. 전란 중에는 外職을 통하여 국사와 민정에 진력하는 한편, 각 지방의 戰亡將士를 매장·추도하고 나아가 역사상 외적을 격퇴한 崔椿命·元冲甲 등 민족의 영웅들을 위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기도

24) 李珥, 「經筵日記」(三), 「以鄭述爲昌寧縣監 述謹於禮學 律身甚嚴 議論英發 淸名日著 屢拜官不就 至是上京拜命 上引見扣其所學 天語溫淳 聞者感激 述乃赴任」.

- 인 조 13년(1635): 成川 士林들이 龍泉書院을 세우고 位版을 봉안(4월)
- 인 조 16년(1638): 昌寧 士林들이 冠山書院을 세우고 위 판을 봉안(2월)
- 인 조 27년(1649): 木川 士林들이 竹林書院(朱子主享)을 세우고 從祀(2월)
- 효 중 2년(1651): 泗陽書院(泗陽은 寒岡의 易寶地)이 준공되어 위 판을 봉안(11월)
- 현 중 2년(1661): 忠州 士林들이 雲谷書院(朱子主享)을 세우고 從祀(4월)
- 숙 중 3년(1677): 沃川 士子들이 三陽書院을 세우고 위 판을 봉안(10월)
- 숙 중 4년(1678): 玄風 士子들이 道東書院(寒喧堂主享)에 위 판을 봉안할 것을 조정에 啓聞(3월)
- 숙 중 16년(1690): 나라에서 檜淵書院을 賜額하고 禮曹正郎 權萬濟를 보내어 致祭함.

II. 寒岡의 敎學目的論

1. 敬 義

儒學은 종합적 敎育人間學이다.³⁰⁾ 그 교육의 이념·목적은 가치인격의 실현, 곧 聖人 이 됨에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유학교육의 이상적 인간상이고 君子는 그 교육적 인간상이다. 그리고 <사람됨>의 가치 실천적 개념으로서 「敬·誠·義」등이 강조된다. 퇴계는 敬, 율곡은 誠, 南冥은 義를 강조하였던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이들 가치 개념은 <志向性>의 문제³¹⁾ 이므로 그들이 자기 강조하는 '개념'을 절대화하거나 다른 개념들의 가치를 상대화시킬수는 없다. '關心의 志向性'이란 가치관에 관한 표현의 차이이다. 성리학적 교육이상은 인간 내부자연의 최고 성숙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일종의 자연의 內在觀 또는 內在哲學(immanent philosophy)³²⁾이다. 인간의 최고 성숙의 길은 居敬窮理에 있고 그 방법론적 원리는 敬義·夾持이다.

퇴계에 의하면 居敬은 <立本事>이고 窮理는 <致知事>이다. 그리고 이 양자를 互進시키는 것이 곧 敬이라는 것이다. 南冥은 致知보다는 居敬을 더욱 중시하였으며 학문보다는 存養集義하는 실천성을 강조하였다(學記類編).

「關心의 志向性」이라는 점으로 볼 때 퇴계학은 敬學이고 남명학은 義學이다. 退·南은 居敬集義의 가치성을 함께 중시하였으나 전자는 이상주의적 원리론(居敬)에 후자는 현실주의적 실천론(集義)에 關心하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居敬集義」에서 集義하는 것은 <直內>이고 居敬하는 것은 <方外>이다. 이처럼 <內外·直方> 또는 「直內·方外」하는 길이 곧 敬과 義의 삶이다. 이 둘은 표리일체이므로 周易 文言傳에서는 「敬以直內 義以方外」라고 하였으며 줄여서 敬義夾持라고 한다. 敬義夾持란 말을 體用論으로 보면, 敬은 體고 義는 用이다. 주자는 이 두 개념을

30) 敎育人間學의 考察로서의 性理學的 敎育理念에 대하여는 拙著 前掲「退溪敎學思想研究」를 참조.
31) 丁淳睦, 「退·栗心性論에 있어서 關心의 志向性」, (제3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제6분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6. pp. <43-3>~<43-18>.

32) 丁淳睦, 「退溪의 陶冶理想에 있어서 收斂性과 擴散性」, 退溪學研究, (제43집), 退溪學研究院, 1984. pp. 30~46. (제7회 「퇴계학국제학술회의」(Hamburg 大) 발표논문.)

통일 시켰다. 朱子는 致知窮理에서는 〈由外而內〉하라 하였고 涵養用敬에서는 〈內外合一〉하라 하였다. 퇴계는 이 양자의 관계를 知行互進이라 표현하였다. 筆者는 이 양자의 통일적 지향성을 「收斂性」(konvergenz)과 「擴敬性」(divergenz)으로 설명한바 있다.³³⁾

致知—知育—知—窮理—收斂 力行—德育—行—居敬—擴散	}—敬·義
--------------------------------	-------

性理學의 本山이던 경상좌우도의 退溪·南冥學派의 학문적 특색을 「敬」과 「義」로 표현한다는 것은 (一方性을 극복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잠정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寒岡教育哲學의 실자리가 발견된다. 그는 兩門에 출입하면서 敬과 義의 妙合性을 발견하였다.

「先生教學者曰 敬義直內 義以方外 此學者 喫緊用工處也」³⁴⁾

원래 性理學의 教學體系는 宇宙心性論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寒岡의 학문 체계는 「心經發揮」로 일단 정리 되었다. 그러나 心經의 해석에 있어서는 集成을 보았지만 理氣心性論에 대하여 독자적 견해를 언급한 것은 별로 없다. 이점에 있어서 그는 철저한 퇴계학도였고 先人에 대한 자가류의 해석이나 발전을 기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한강은 관념적인 理氣哲學 보다 실천적인 禮哲學의 학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人性論에서 寒岡은 退溪와 몇가지 다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즉 天地之性과 氣質之性이 본래적으로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둘은 混融된 것인가를 問目한 제자에게 후자가 옳다고 답하였다.³⁵⁾ 전자는 퇴계說을 이어받은 金而精의 말이고 후자는 栗谷說을 부연한 崔季昇의 말이다.

위의 問目은 四七論에 있어서 對說(퇴계주장)과 因說(高峯주장)에서 〈因說〉을 옳다고 한 것이고 理氣互發論(퇴계설)과 氣發一途說(율곡의 주장)에서 후자를 지지한 것이 된다. 다만 〈崔說·是〉라고 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거의 추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같은 「答問」에 「來諭 天地若分得 則人與我亦可分得(……) 既有物我之間 恐不可渾淪不分也 天地之理 只是一理 豈非一個知乎」³⁶⁾라고 하여 人性과 物性과의 차이는 인정하되, 人性에서의 天地之性은 같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보충한다면 寒岡의 人性論은 가치실현의 당위론에 귀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赤子之心」과 「聖人之心」의 차이에 관한 한강의 해답이 있다. 그는 말하길 赤子之心은 純一無僞하지만 스스로 知覺할 수 없으므로 明鏡止水와 같은 聖人之心을 알 수 없

33) 위의 논문, pp. 33—39.

34) 「言行錄」, 〈教人, 一李天封〉

35) 「全書」(上) 卷七(答問) p. 126. (金君而靜曰 天地之性 氣質之性 各有所主 有主理而言者 有主氣而言者 不可混同說也 譬諸水焉 天地之性 川流之水也 氣質之性 貯器之水也.)

崔君季昇曰天地氣質之性 不可太分別 纔說性時已墮在氣質之中 天地之性 性字初無分別 但有主理與主氣之別耳此兩說是否如何? (寒岡答曰) 崔說是.

36) 같은 글, p. 128.

다. 따라서 大人의 경지에 나아가야만 水鏡과 같이 洞然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³⁷⁾ 그러므로 자아의 최고성숙의 경지(聖人·大人)는 主一無適하는 敬의 공부에 있을 뿐이라고 한다. 한강에 의하면 敬이란 無偏할 뿐아니라 ‘留滯의 病’이 없는 湛然自在로운 것이므로 「非以不逐外物而走作爲敬」·「敬則自不逐外物而走作」하는 정신의 자유로움과 깨어남 속에 깃든다는 것이다. 敬은 「心之存主處」이고 이는 操存涵養에 있기 때문이다.³⁸⁾

3. 做人

성리학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張橫渠나 周濂溪까지는 太極陰陽論이 우주론의 기본이었고 이는 고대 자연과학적 세계관인 氣論의 표현이었다. 그러다가 程子 형제에 의하여 理라는 개념이 創案되면서, 우주론에 있어서 보편적인 근원자로서의 理를 생각하게 되고 인성론에 있어서 性을 대칭시켜 天人合一의 우주인성론을 체제화 시켰으며 朱子에 의하여 이 사상 체제는 일단의 완성을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주자는 理氣의 해석을 「不相雜」·「不相離」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피력함으로써 뒷날 理氣·心性論에 있어서 論辯의 소지를 남겨 두었다. 이러한 논변이 중국에서는 그다지 문제되지 않고 다만 朱陸知行論에만 대립되었는데 반하여 한국 성리학은 人性論에 있어서 심각한 대립과 철저한 연찬이 수 백년간 계속되었다. 理氣心性論은 退·栗 이후 한국철학의 최대의 논쟁점이었고 특색이었다. 뒷날 이 논쟁이 空論空理에 흐르는 폐단도 있었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思辯的이고 관념적인 명제만이 아니라 價値觀의 확립을 위한 人間觀·世界觀의 철학적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退溪와 高峯간의 四七論辯은 소요된 시일의 장구성에 있어서나 문제 발전의 철저성과 심각성에 있어서 세계 철학사상 최고봉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이 論辯은 학술적 의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16세기 말엽의 한국 사회상에 있어서 價値人格의 인식론적 구조 해명이라는 점에 있어서 또는 社會理想의 규범제시의 철학적 定位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퇴계와 고봉의 哲學的 現實意識은 사변적 관념론자의 논변만일 수는 없다. 牛溪와 栗谷의 理氣心性論辯도 마찬가지다.

人間理解의 근거가 되는 理氣心性論에 있어서 퇴계와 율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른 稿에서 다음과 같이 그들 關心의 志向性을 구별하였다.³⁹⁾

「퇴계는 형이 상학적 본체론(우주론)에 있어서는 理動說을, 그리고 인간학적 심성론에 있어서는 理發說을 주장하였는데 율곡은 「理單發」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퇴계는 善一邊到(四端)와 兼善惡兩邊到(七情)를 엄격히 구분하려 하였고 율곡은 이를 포괄하려고 하였다. 퇴계는 인간가치의 보편성을 강조하였다면 율곡은 현상의 특수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퇴계는 이상주

37) 같은 글, p. 128. (或問 赤子心與聖人之心若何則 程子曰 聖人之心如明鏡如止水 未知赤子之心不如是耶?)·(寒岡答曰)「赤子之心 純一無偽 大人之心 無智巧作 偽者實似之 故謂之不失其赤子之心 赤子之心自無知覺 何能知其爲明鏡止水也 到大人地位 方見洞然 如水鏡焉爾」

38) 위의 글, p. 133.

39) 丁淳睦, 위의 「退·栗心性論에 있어서 關心의 志向性」, pp. (43-8)~(43-9).

외적 가치지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현상에서 본질을 바라보았고 율곡은 본질에서 현상을 바라보았다.」

결국 退·栗의 인간이해는 그 탐구의 방법이 달랐다. 교육적 인간형성(사람이란 무엇이 되어야 하나?) 이 지향하는 規範性(常)은 같았으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누리는 인간조건(사람이란 무엇인가?)의 狀況性(變)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하였다.⁴⁰⁾ 主<常>하는 편이 퇴계라면, 主<變>하는 쪽은 율곡이었다.

寒岡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理氣心性論과 같은 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南冥學派의 특색이기도 하다.⁴¹⁾ 한강이 이러한 남명의 학문적 특색을 그대로 계승하였는지는 의문이지만, 그의 학문이 주로 禮學에 쏠려 있었다는 關心志向性은 理氣論의 난잡한 사변성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됨’(※menschenwerden. K. Jaspers는 교육을 ‘사람임’(menschsein)에서 ‘사람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였다. 성리학에서는 「做人」이라고 표현한다)의 바탕은 宇宙論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寒岡이 이 문제를 전혀 도외시하였던 것은 아니다.

道(곧 理이다)의 先驗性(apriori)과 經驗性(asterior)의 문제는 어떠한가라는 敬堂 張興孝의 질문에 寒岡은 후자가 <非偶然也>라고 답한 적이 있다.

「(張興孝)問 道在陰陽之先(蔡氏說)此說何如 陰陽無始 動靜無端 陽先有陰 則陽之理在乎陰 陰先有陽 則陰之理在乎陽(葉氏說)抑何如, 先生曰 葉氏說 非偶然也.」⁴²⁾

위의 問答가 바로 理氣心性論 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한강의 立脚點이 어디인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한강의 현실지향적 입각점이 許眉壽를 거쳐 李星湖에 이르고 이것이 近畿學派의 실학적 성격 형성에 작용한 實學淵源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지로 그의 독서범위는 다른 성리학자의 그것보다 광범위한 것이었으며 평생의 저술 또한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門人이 그들두고 <於書>에 읽지 않은 책이 없고, <於行>에 힘쓰지 않은 바가 없고, <於事>에 익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於藝>에 탐구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고 한 그대로, 그는 天文·地理·醫方·卜筮·兵書·風水說 儀制 및 심지어 異端의 書까지도 섭렵하였다.⁴³⁾ 이러한 학문영역은 퇴계·남명과는

40) 위의 글, p. 43—9.

41) 남명의 학풍은 文辭를 그다지 숭상하지 않았으며 「得心」·「踐實」의 태도를 지녔다. 「程朱後學者不必著書」란 입장을 취하여서 입으로만 天理를 논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고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는 퇴계에게 주는 글에서 學者들의 고담준론하는 폐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近見學者 平不知澹掃之節 而口談天理 計欲盜名 反爲所中傷 害及他人 豈先生長老 無有以呵止之故耶)·(南冥集 卷四, 補遺 與退溪書) 이에 대하여 퇴계는 답하기를 학자는 품성과 취향이 다르므로 일률로 금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자신은 그렇게 막을 입장에서 서 있지 않다고 하였다. <退溪集> 卷10 (答曹捷仲)

42) 「言行錄」, (講辨—張興孝)

43) 「言行錄」, (學問)—文緯(先生 志學以來 勤敏刻苦 於書無所不讀 於行無所不力 於事無所不習 於藝無所不究 至於天文地理醫方 亦皆講而通之 冠昏之儀 喪祭之制 莫不精求 而講明以爲天地之間道理 非吾儒以爲事業 更誰擔當)

○「言行錄」, (讀書)—張興孝(異端之書亦無不涉獵 究知其所以爲異端之故 然後輒復看)

○「言行錄」, (雜記)—李天封(先生於諸子百家 及醫藥卜筮兵書 風水之說 無不略該通 而晚年以業不精廢之).

다른 국면이다. 퇴계는 陽明學의 비정통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양명학을 고찰 비판하였고, 자신의 진장을 위하여 「活人心方」과 같은 보건위생학을 手書한 적이 있으나 그의 주된 학문적 관심은 오직 心經과 朱子書였으며, 남명은 太極圖書마저 心身에 무익한 것이라 하였다.

寒岡의 博學은 일용후생을 위한 愛民思想의 餘緒였다. 그가 禮學을 집대성하여 체계화 한 것 역시 당시 퇴폐한 시속을 교정하려는 것이고 社會 綱紀의 준거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 「時 禮法廢壞 婚姻之家 不知親迎之爲何事 必三日而後 夫婦始相見 祭祀之家 遇忌日則或於僧舍而爲佛家待食供養之事 先生據儀禮 而纂昏儀祭儀等禮 好禮之士 爭趨而正之 於是風俗丕變 士大夫家 知冠昏喪祭之禮 皆先生之 賜也」・(李滉)
- 「時 巫覡禱祀之風大熾 雖初喪之家 亦備酒食饗賓客 以醉爲度 自先生一唱之後 士大夫家皆感而化之」・(李滉)⁴⁴⁾

그리고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릴 때 마다 빠짐 없이 엮은 地方誌는 민족문화의 보전과 사회교육의 실효를 위한 저술 활동이었다. 이처럼 〈於書〉・〈於行〉・〈於事〉・〈於藝〉에 博通하였던 그의 학문 영역은 실로 橫學이라는 실용성에서 나온 것이다. 한강은 지식을 위한 지식은 선비의 氣味를 잃게 하는 것으로서 선비는 마땅히 韜晦(지식이나 재주를 감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⁴⁵⁾

한강의 인품은 이렇듯 「勇決寡德・才用不窮」하는 데 자족하였으며 이는 世間榮利를 뜯 구름처럼 본 사람됨의 표현이었다.⁴⁶⁾

Ⅲ. 寒岡의 教學方法論

1. 教學方法의 原理

寒岡이 제시한 교학방법의 원리는 다음 다섯 가지이다.⁴⁷⁾

첫째로, 학문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發憤・立志・勇猛・篤實・深體⁴⁸⁾・力行하여야만 이룰 수 있다.

둘째로, 학문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스스로 깊이 韜晦하여 오직 남이 알까 두려워하여야만 儒者의 기상을 잃지 않는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를 소홀히 하는 사람과는 머물러 학문을 논할 수 없다.

44) 「言行錄」・(禮學)

45) 「言行錄」・(教人)(學者須是深自韜晦 惟恐人知 方是爲己不失儒者氣味)

46) 「言行錄」・(持敬)「先生豪邁出天 穎悟絕人 勇決寡德 才用不窮 十七八歲時 已見得天人一理 聖賢功業 超然萬物之上 視世間榮利 如浮雲」(郭近).

47) 「全書」・文集 卷四・書, pp. 69—70.

48) 「體認切至」이다. 「全書」위의 處, 〈子路義勇氣象〉

셋째로, 학문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그 몸 가짐을 閨中の 처녀와 같이하여 한 점 더글을 묻혀서도 안된다.

넷째로, 학문하는 사람은 차라리 伯夷와 같은 편성을 지닐지언정 柳下惠와 같은 不恭⁴⁹⁾을 지녀서는 안된다.

다섯째로, 학문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檢身하기를 사소한 데까지 하여야 한다.

〈爲學之要五〉

- 學者須是發憤 立志 勇猛 篤實 深體 力行 始得
- 學者須是深自韜晦 惟恐人知 方是不失儒者氣味 若有些求 知底意思 便是爲人不可與共學也
- 學者自持其身 當如閨中處子 不可一點受汚於人
- 學者寧失於伯夷之隘 不可學柳下惠之不恭也
- (……)學者須是檢身 若不及無些子放過 始得」

위 다섯가지 「爲學之要」는 학문의 길은 高深玄妙한 思辯知的 추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人倫日用事의 실천 공부에 있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下學上達」의 전통적인 유학 교육의 길이다. 이러자면 靜坐法으로 身心을 收斂하는 한편, 九容(足容重・手容恭・目容端・口容止・聲容靜・頭容直・氣容肅・立容德・色容莊)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⁵⁰⁾ 그러므로 「身心收斂」이 그 요체가 된다.

寒岡은 이를 「養浩」라고 하였는데 孟子의 浩然之氣를 기른다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한편의 長文을 撰하였다. 곧 「養浩帖」이다.⁵¹⁾ 이 글의 전반은 孟子「公孫丑章句上」의 浩然之氣說을 인용 설명한 글이다. 글의 뜻은 대략 다음과 같다.

「浩然之氣란 그 본질이 天地의 正氣이기 때문에 지극히 위대한 것이고 어떤 것에도 굽힘이 없으니 지극히 굳센 것이다. 이것을 바르게 길러서 해치는 일이 없으면, 天地 사이에 충만되어 대자연으로 더불어 混然一體가 된다. 사람이 浩然之氣가 없다면 이것은 정신이 병들어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 氣는 어디까지나 마음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告子의 義外在說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浩然之氣를 기르는 방법은 志氣(도의심)를 추적하는데 있는데, 이러한 氣는 급속한 육성을 기대하여서는 안된다. (勿助長) 그렇다고 해서 마음 속에서 잊어버려도 안된다(勿忘) 또 氣의 발전 속도가 느린 것을 안타깝게 여겨 무리하게 서둘러서도 안된다. (宋人의 揠苗助長) 浩然之氣는 道와 義에 배합되는 것으로서 道는 體이고 義는 用이다. 이렇게 體用이 배합하는 正氣(集義)는 천지 자연의 이치를 살피면 자연히 알 수 있다.」

49) ◦〈伯夷之隘〉: 殷나라의 處士로 나라가 망하자 아우 叔齊와 함께 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먹다가 죽었다. 孟子(萬章下)에 〈聖之清〉이라 한다.

◦〈柳下惠之 不恭〉: 柳下惠는 魯나라 大夫로 論語(衛靈公)에 「知柳下惠賢而不與立也」라 하였다. 〈從俗不屈〉하여 벼슬을 거절하지 않았다. 孟子(萬章下)에 〈聖之和〉라 하였다.

50) 「言行錄」, (敎人)「嘗敎學者曰 須習靜坐 收斂身心如玉藻 九容尤加着工夫 緊要約束 不可有些放過 大凡爲學不在高深玄妙 只就人倫日用上 提撕警覺 隨遇加察 凡百處爲亦宜必求合理 有以力行無所間斷方好」(崔恒慶)

51) 〈全書〉(上)續集 卷四「雜著」, pp. 303—307.

孟子의 「浩然之氣說」을 토대로 하여 寒岡의 「養浩說」은 다음과 같이 전개 된다.⁵²⁾

- 孟子의 養氣一篇을 마땅히 潛心玩索하여야만 勿忘・勿助長의 함 뜻을 알게 될 것이다.
- 義와 道가 배합되는 것이 義理이다. 이 義理를 양성하는 것은 義와 道에 배합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氣 따로 義 따로 된다. 浩然之氣란 氣와 義가 합친 것이다.
- 敬은 다만 養酒一事이니 集義할 줄 모르면 모든 일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 理에 맞다는 것은 義가 心内に 있다는 것이다. 義가 주장되지 않는다면 浩然之氣가 理를 생한다고 할 수 없다. 마땅히 이렇게 된 다음에라야 「德」이랄 수 있다.
- 敬은 持己의 道이고 義는 그 옳고 그름을 이치에 맞게 따르는 것이다.
- 敬以直內하면 氣는 浩然하게 되고 이를 양성하면 大人이 된다.
- 義氣의 道는 勿忘 勿助長하는 데 있고 「主一無適・敬以直內」하여야 浩然之氣가 된다. 浩然之氣는 用으로 보면 集義所生에서 나오고 體로 보면 道와 합치는 것이다. 따라서 孟子는 이를 至大至剛하다고 하였다.
- 志가 順하면 氣는 逆하지 않는다. 氣順하면 스스로 바르게 되고 志順하면 氣가 浩然하다. 그러므로 浩然之氣를 기르고자 하면 그의 志를 無暴하게 하여야 한다.

寒岡의 養浩說은 義氣・志氣・養氣에 관한 수양론이다. 孟子의 수양론을 근거로 하여 存心養性の 길을 제시하고 있다. 寒岡은 不動心과 浩然之氣의 예로 北宮黶(유)와 孟施舍를 들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다같이 齊나라의 용사였다. 북궁 유는 무기를 가지고 위협해도 눈한 번 깜짝하지 않았으며, 남에게 조금이라도 꺾이는 것을 크게 부끄러워 하여 諸侯나 萬乘天子에게도 마구 매들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남을 이기고야 만다는 주의 밑에서 不動心하였다. 孟施舍는 지고 이기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용감하게 나가 싸웠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주의 밑에서의 不動心이다. 이 두 사람을 孔子의 제자에게 비유한다면, 북궁 유는 子夏에 가깝고, 맹시사는 曾子에 가깝다. 북궁 유의 용기와 맹시사의 용기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內省的인 면에서는 맹시사가 나은 것이다. 그러나 曾子의 大勇에는 못미친다. 曾子는 義가 아니면 입증할 때도 팔던 자리를 바꾼(易簣) 참 용기가 있었다. 大勇이란 스스로 반성해서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치고, 잘못이 없다면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이다. 자기를 반성해서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 道徳心이 外物의 유혹을 받지 않는 의미에서의 不動心・浩然之氣・大人之心이다. 寒岡은 교육방법의 원리로서 「養浩帖」을 이러한 뜻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뒷날의 성리학자들은 居敬集義・存心養性이라는 內觀心理學的인 자각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陸王學처럼 頓悟의인 「尊徳性」에 치우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반드시 下學上達이라는 漸修的인 「道問學」을 대칭시키곤 하였다. 尊徳性이 主情主義라면 道問學은 主知主義이다. 16세기 이후 한국성리학의 발전은 道問學의 주지주의 일변도로 主導되었다. 寒岡이 尊徳性一邊到의 공부를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 내면 세계의 자각성에 주목하였다는 사실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門人 黃宗海가 朱陸哲

52) 뒷글, pp.305~307. (요약)

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들었을 때, 寒岡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⁵³⁾

「問朱陸角立之由 先生曰 朱子尊德性道問學兩邊工夫 未嘗偏廢 象山之學 偏主尊德性一邊工夫 此乃以角立也」

위의 설명은 朱子學의 장점을 말한 것이 되지만, 養心·養氣를 소홀히 하는 공부는 성리학의 正道가 아니라는 말도 된다. 그리고 참된 학습이란 見聞思辯知가 아니라, 直覺에 의한 洞察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寒岡은 직각과 통찰에 의한 학습을 「體」라는 접두사로 표시하였다. 곧 「四體」이다. 그의 교육방법의 원리는 이 四體로 집약할 수 있는 데, 〈體認·體察·體驗·體行〉이 이것이다. 이러한 〈體〉가 없는 학습은 단지 앵무새와 같은 「剽竊學習」이고 「科試學習」일 뿐이다.⁵⁴⁾

「先生語學者曰 所貴乎讀書者 非爲剽竊章句 以成文章 取科第而已 讀聖賢經典 其法有四 一曰體認, 二曰體察, 三曰體驗, 四曰體行, 苟不用此四法 其義亦無以通曉 況吾身心有何益焉 古人鸚鵡之譏 可不懼哉」

한강의 학습태도는 첫 귀절을 읽을 때는 마음 속에 그 첫 귀절을 〈體〉하고, 둘째 귀절로 나아갈 때도 역시 그러하였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서둘러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귀절을 끝낼 때마다 반드시 오래 동안 책을 덮고 「危坐」하여 깊이 사색한 뒤 다른 소관을 보았다는 것이다.⁵⁵⁾

그러므로 그의 학습방법은 精熟主義였다. 〈熟〉하지 않으면 義를 얻을 수 없고, 〈精〉하지 않으면 理를 살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⁶⁾ 그리고 學習 한 뒤에 곧 잊어버리는 것은 持敬工夫가 올바르게 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靜坐讀書의 樂은 主忠信 밖에 다른 玄妙한 方法이 따로 있겠는가 하였다.⁵⁷⁾

한강의 「養浩帖」이 주로 학습준비도(Learning readiness)라는 情緒的 측면(affective domain)에 관한 것이라면, 다음에 소개하는 「讀書帖」은 주로 그 認知的 측면(cognitive domain)에 대한 것이다. 이는 주로 程子(伊川)·謝上蔡·朱子·李延平·薛敬軒 등이

53) 「言行錄」, 〈講辨〉.

또 儒佛間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全書」(上) 卷四 〈書〉, 「靜中有物」, (儒者之學 異於釋氏之空 無難於湛然淵靜之時 而有箇炯然不昧之 理自在裏面 未嘗有熄學者, 於此不可尋覓 不容安排 但當敬以直內 涵養將去上面 自然有這物事公 且靜坐主敬涵養 勿忘勿助 久自純熟 便自見得)

54) 「言行錄」, 〈讀書〉, (郊軒).

55) 「言行錄」, 〈讀書〉, (文緯)(竊謂先生讀書時 讀第一句心在 在一句讀 第二句心在 第二句讀 未畢雖有急遽 未嘗遽起讀既畢 輒整卷危坐 沈吟良久而後 酬應他事).

56) 「言行錄」, 〈讀書〉, (孫處訥)(先生曰 讀書不要多 只要精熟 不熟則不能得其義 不精則不能察其理) 「위와 같은 곳」, (李堉)(先生讀書必究大義爲詞章 不事世俗陳腐之態 因文推理就辭著實 一時流輩鮮有及之者 德溪甚愛重之 函稱道之 搢紳之來過養堂者 先生言行文章 皆知其他日必爲大儒).

57) 全書(上) 卷四(書), 「答蔡靜應(夢硯)」(想君有靜坐讀書之樂 恨不能往同之也(……) 主忠信, 只是此心 不敢輕而已 豈有他玄妙之可言哉)

「言行錄」, 〈讀書〉(文緯), (問未嘗不讀書 而讀了後便全然忘却奈何 先生曰 持敬工夫 何處不宜 而讀書時尤覺有味 君試行之 然有別)

말한 학문연구 방법론의 원리를 한데 모아 엮은 것이다. 원문대로 옮겨 적는다.

〈讀 書 說〉⁵⁸⁾

- 程 子 曰 涵養須用敬進學則在致知
 又 曰 敬只是涵養一事
 又 曰 涵養吾一
 又 曰 一者無他 只是整齊嚴肅 則心便一一 則自是無北辭之千 此意但涵養久之 則天理自然明
 又 曰 須是直內 乃是主一之義 至於不敢欺 不敢慢 尚不愧于屋漏 皆是敬之事也 但存此涵養久之 自然天理明
 又 曰 古之人動息 皆有所養 今獨有理義之養心耳 但此涵養意久 則自熟矣 敬以直內是涵養意
 又 曰 喜怒哀樂 未發之前 更怎生求 只平日涵養 是涵養久則喜怒哀樂 發自中節
 問 涵養於未發之初 易爲力苦發心以後則難制 曰 未發時 固當涵養 不成發後 便都不管
 又 曰 學至涵養其所得 而至於樂 則清明高遠矣
 謝 氏 曰 任意喜怒 都是人欲 須察見天理涵養始得
 朱 子 曰 敬是涵養操存不走作
 又 曰 涵養之 則凡禮勿視聽言動禮儀三百 威儀三千皆是
 問 九容本原之地 固欲存養於容貌之間
 又欲隨事省察 曰 即此便是涵養本原 這裏不是存養 更於甚處存養
 又 曰 涵養體認 致知力行 四者不可先後 又不可無先後 須當以涵養爲先
 又 曰 大本用涵養中節 則須窮理之功
 又 曰 既涵養 又省察無時不涵養省察
 又 曰 涵養熟者 自然中節
 又 曰 涵養未發之前 則其發處 自然中節者多
 又 曰 謂當涵養者 本謂無事之時 常有存主也
 又 曰 平日莊敬涵養之功 至而無人欲之私 以亂之則 其未發也 鏡明水止 而其發也 無不中節矣。
 而日用功夫 以察識端倪爲最初着手處 以故關却平日涵養一段工夫 使人胸中擾擾無深 僭純一之味 而其發之 言語事爲之間 亦嘗急迫浮露 無復雍容 深厚之風 盖所見一差其害 乃至於此 不可以不審也。
 又 曰 橫渠云 顏子未至聖人 猶是心龜一息不存 即爲龜病 要在精思明辨 而操存涵養 無須叟離 無毫發間 則天理常存 人欲消去 其庶幾矣哉
 延平先生曰 孟子有夜氣之說 更熟味之 當見涵養用力處也 於涵養處着力 正是學者之要 若不如此 存養終不爲己物也
 又 曰 夜氣存 則平朝未與物接之時 湛然虛明 氣像自可見 孟子發此夜氣之說於學者 極有力苦 欲涵養須於此 持守可爾
 又 曰 當今之時 須大段涵養艱晦始得
 又 曰 艱晦一事嘗驗之極難 自非大段涵養深潛 定不能如此 遇事輒發矣
 又 曰 近日涵養 必見應事脫然處否 久久純熟漸可渾然氣象矣
 朱子撰 延平行狀曰 操存益固 涵養益熟 精明純一 觸處洞然 泛應曲當 發必中節
 又 曰 先生却不曾著書 充養得極 好凡爲學也 不過是恁地涵養 將去初無異義 只是先生 粹面盎背 自然不可及
 問李先生 涵養得自是別 眞所謂不爲事物所勝者 古人云 終日無疾言遽色 他眞箇是如此
 李 先 生 教學者於靜中 看喜怒哀樂未發之氣象爲如何 伊川謂既思即是已發道 夫謂李先生之言主於

58) 全書(上) 卷四 〈雜著〉, 「讀書帖」, pp. 307~308.

體認 程先生之言 專在涵養 其大要實相表裏

薛氏曰 涵養深則 怒已即休 而心不爲之動矣

又曰 一息不可不涵養 涵養只在 坐作動靜語默之間

又曰 只觀人氣象 便知其涵養之深淺(下略)

위 「讀書說」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涵養하여 用敬進學하면 致知에 이른다. / 敬이란 다만 涵養하는 일이다. / 涵養은 스스로의 마음을 한가지로하여 整齊嚴肅하는 것으로서 오래 涵養하면 天理가 저절로 밝아진다. / 敬以直內하면 主一(마음을 한가지로 함) 하게 되고 스스로 속이거나 해이하지 않고 홀로 있을 때 근신하게 된다. 이러한 '涵養의 뜻'을 오래 지니면 스스로 사람됨에 이르고야 만다. (敬以直內가 涵養意이다.) / 오래 함양하면 喜·怒·哀·樂이 스스로 中節한다. / 배움이 涵養에 이르러 얻은 바가 있다면 그 즐거움은 淸明高源하게 된다. / 멋대로 회노애락 하는 것은 모두 人欲 때문이다. 天理를 잘 살펴볼 것 같으면 涵養할 수 있다. / 敬이란 涵養을 操持함이니, 제멋대로 하지 않게 한다. / 涵養하는 방법은 예가 아니면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것 등이다. 禮儀 3백과 威儀 3천이 모두 이것이다. / 涵養의 本源은 義理를 사색함에 있다. / 큰 근본을 세워서 涵養하여 절도에 맞아야만 窮理의 효과를 얻는다. / 함양이 잘 되어야 자연히 절도에 맞는다. / 회노애락이 未發일 때 함양하여야 (그것이 발할 때) 自然中節이 된다. / 마땅히 涵養하는 자는 無事時에도 늘 상 存主하여야 한다. / 涵養의 효과는 人欲의 私亂이 없는 것이 未發이고 明鏡止水 같은 것은 已發이다. 평소의 공부는 가슴 속에 번거로움이 없고 행동에 深厚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 孟子의 夜氣說은 함양공부하는 자에게 매우 긴요한 것이다. 「湛然虛明」한 기상이 맹자의 夜氣說이다. / 涵養은 남몰래 하는 것이다. / 韜晦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하면 深潛하여야 한다. / 應事에 脫然히 함양할 수 있어야 純熟되고 차츰 渾然한 氣象이 된다. / 教師는 靜한 가운데 회노애락의 未發氣象을 보아야 한다. / 涵養이 깊으면 노여움이 가라앉고 마음의 동요가 없게 된다. / 한 순간도 함양이 없을 수 없으니 이는 坐作·動靜·言默하는 가운데 있다. / 그 사람의 氣象을 보면 그의 涵養深淺을 알 수 있다 / 君子는 하루 종일 조심하고 근심하여 한점 허물도 없고자 하여야 한다.

2. 教學方法的 節次

가. 「講法」⁵⁹⁾(會講法規)

① 願入者具單刺 以待僉議許入(有學主)

② 會之日 當於早朝食時謁聖 未及參者 責之

③ 分左右正坐 各定有司 規檢 如有起居無節 言笑失宜者 當責有司

④ 一讀之事 講長主之 當與有司議處

① 入講을 원하는 자는 單刺를 갖추어 有司들의 상의를 거쳐 入講토록 한다. (추천인이 있어야 한다)

② 講會일은 早朝에 謁聖하고 참석치 못하는 자는 벌 준다.

59) 「全書」, 續集 卷四, 〈雜著〉「講法」 pp. 309~310 寒岡, 64 매 지음.

- ⑤ 五講 不通者黜讀 三講 不參者黜讀
- ⑥ 不通 楚三十 兩書並不則用甲 未准分輕重行 楚多不過三十 少不下楚十 既罰後 令於會追講 先本期講之
- ⑦ 其有病故 未及於講者 貝單刺以告病 己或事訖 即追講 必講長與有司具然後 講之
- ⑧ 讀中不參之人 除老病外 鄉校書院 皆有以處之 如非案錄之人 或被人訴 不許相救
- ⑨ 約規一從舊本
- ⑩ 所讀書逐月有課 當先經書 亦及子史 其他文章 舉業之書 雖不免餘力 看讀而不入於課簿.
- ⑪ 會之日 通讀小學等書 各歸溫習 重講於後會
- ⑫ 講會 以每月望日爲期
- ⑬ 覆黃人則 不許謁聖 亦不許坐 只於講畢 入講 而退
- ⑭ 黜讀之人 書名付壁 不許士友之會.

- ③ 左右로 나누어 正坐하고 有司들로 하여금 단 속시키되 동작이 법도가 없거나 言笑하여 失宜한자는 有司가 꾸짖는다.
- ④ 一讀하는 일은 講長이 주재하되 有司들과 의논을 거쳐야 한다.
- ⑤ 五講을 不通한 자는 퇴학시키고 三講을 결석한 자도 퇴학시킨다.
- ⑥ 不通하면 楚筴 30을 하고, 兩書를 모두 不通하면 甲杖을 쓴다. 楚의 輕重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30楚를 넘지 않도록 한다. 벌을 준 뒤 補講토록 하는데 먼저 本期에서 講한 내용으로 한다.
- ⑦ 병으로 講會에 나오지 못하면 單刺를 갖추어 告病한다. (病缺屈) 사유가 끝나면 즉시 補講하되 반드시 講長과 有司들이 상의한 다음에 강을 받는다.
- ⑧ 講會中에 불참하는 자는 老病 외는 위 같이 한다. 鄉校·書院에서는 院遊錄(靑襟錄)에 실리지 못한 사람과 재판에 연루된 자는 相救하지 못한다.
- ⑨ 約規는 舊本을 따른다.
- ⑩ 다 읽은 책은 逐月하여 課題하되, 經書와 子史에 된쓰고 그 밖에 科擧 준비공부는 비록 餘力이 있어서 보드라도 課簿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 ⑪ 講會日에는 小學 等書를 通讀하고 각자 집에 돌아가서 복습한다. 重講 한 뒤에 모인다.
- ⑫ 講會는 매달 15일로 정한다.
- ⑬ 重罰者(覆黃人)는 謁聖하거나 강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講을 마친 뒤 入講하고 나간다.
- ⑭ 除籍者는 벽에 이름을 게시하고 士友 간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금한다.

나. 「通讀會儀」⁶⁰⁾ (講會儀)

- 是日 早期而會(講長有司先至) 既會 有司 ‘設先聖先師遺像於北壁’
- 率諸生就庭中北面立
- 再拜
- 升堂
- 降
- 與在位者 皆再拜
- 有司升堂藏遺像
- 就堂上 有司引立於東西向立
- 諸生皆再拜
- 拜答(俟其俯伏而答之) 講長以下出
- 有司引講長 東西向立
- 又引稍少者(以講長之年推之不滿十歲)東面北上

- 강회는 早朝에 열린다(講長과 有司가 먼저 온다) 다 모이면 有司는 北壁에다 先聖과 先師의 유상을 설치한다.
- 諸生을 뜰 가운데 인솔하여 北面하여 세운다.
- 두 번 절한다.
- 당으로 올라간다.
- 내려온다.
- 在位者는 모두 두 번 절한다.
- 有司가 堂으로 올라가서 遺像을 갈무리 한다.
- 堂上으로 나아가 有司는 東西를 향하여 선다.
- 諸生은 모두 再拜 한다.
- 答拜한다(꿇어엎드린 것을 기다려 답배한다) 講長 이하 나온다.

60) 「全書」, 續集 卷四, 〈雜著〉「通讀會儀」, p. 309. (64세 시 저음)

- 拜 講長(再拜)
- 講長答拜
 - 稍少者退 立於西序東向北上
 - 引少者(少講長十歲以下者) 東北向西上 拜講長 講長受禮如儀(跪於而答其半)拜者復位
 - 引幼者(少講長二十歲以下者) 亦如之(講長答拜 當跪而扶之)禮畢
 - 講長西向坐 有司坐 其次 稍退俱西向
 - 餘人俱東向坐 講長與有司 共准諸生所誦 如有未佳 書之于冊
 - 准畢 講長與有司 俱升堂
 - 以次 引諸生楚講 先講小學 小學畢講 本業通略 粗不 皆書之冊
 - 講畢 講長以下俱出
 - 未准與不通者 別定執事行楚
 - 其有不謹者 入告而坐之
 - 行罰訖 有司入告
 - 於是乃食
 - 食畢小休復會 講長與有司 各詢問諸生行止言動之節 如有所失 分輕重共規之 謝過請改 則書之 如有爭辨不服 與終不能改者 入告而處之 輕則楚 重則覆黃 甚則黜讀
 - 講長率諸生入通讀小學 或呂氏鄉約 或童蒙須知
 - 講長與有司 勘定諸生開朔所讀之書
 - 至哺⁶¹⁾ 講長與諸生 拜辭而退

- 有司가 講長을 인도하여 東쪽에서 西向하여 서게 한다.
- 「稍少者」(講長의 나이보다 10살 미만인 자)를 인도하여 재배시킨다.
- 講長이 答拜한다.
- 稍少者는 물러서 西에서 東쪽을 바라보게 하고 北上으로 세운다.
- 「少者」(講長 보다 10살 이하인 자)를 인솔하여 東北向하여 西上의 講長에게 절한다. 講長은 절도에 맞게(跪하여 반절한다) 받는다. 拜者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 「幼者」(講長보다 20살 밑으로 젊은 자) 또한 위와 같다(講長의 答拜는 跪하여 扶之한다)禮를 마친다.
- 講長이 西向하여 앉고 有司는 모두 그 다음에 앉되 조금 물러나서 西向한다.
- 나머지는 모두 東向하여 앉는다. 講長과 有司는 함께 諸生들이 誦한 바를 考准한다. 만약 잘못하면 성적부에다 적는다.
- 考准이 끝나면 講長과 有司는 함께 堂에 오른다.
- 차례대로(年齒의 序) 諸生을 誦講토록 인도한다. 먼저 <小學>을 강하고, 이를 마친 뒤 評價하되 <通>·<略>·<粗>·<不> 4단계로 하고 성적부에 적는다.
- 講이 끝나면 講長 이하 모두 나간다.
- 未准 된 자나 不通된 자는 執司를 따로 정하여 楚讎한다.
- 그밖에 행실이 不謹한 자는 告하여 출석시킨다.
- 罰을 마친 뒤 有司는(講長에게) 入告한다.
- 점심을 든다.
- 점심을 마친 뒤 잠시 쉬고 다시 講會한다. 講長과 有司는 번갈아 가면서 諸生의 행동거지에 잘못이 있다면 경중을 가려서 함께 규찰한다. 허물을 빌고 고칠 것을 약속하면 벌책부에 적는다. 만약 爭辨하면서 不服하거나 끝까지 고치려고 하지 않는자는 가벼운 경우에는 楚讎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覆黃(벌주는 연장의 무거운것)하고 심한 경우에는 내쫓는다.
- 講長은 諸生에게 小學·呂氏鄉約·童蒙須知 따위를 通讀시킨다.
- 講長과 有司는 諸生이 開朔한 뒤 독서한 바를

61) 옛 시간의 12시 가운데 하나 「日哺」(申時, 오후 4~6시)
「昧爽」·(寅時)·「日出」·(卯時)·「食時」·(辰時)·「禺中」·(巳時)·「日中」·(午時)·「日昃」·(未時)·「日哺」·(申時)·「日入」·(酉時)·「黃昏」·(戌時)·「人定」·(亥時)·「夜半」·(子時)·「雞鳴」·(丑時)

勘定한다.

○ 오후(日晡 4~6시)에 講長과 諸生이 拜辭하고 하학한다.

다. 「院規」⁶²⁾ (道東書院 院規로 지음)

一. 〈謹享祀〉

鄉校實爲本原之地 而近來頽敝太甚 雖有識之士亦不免自混於流俗 而如視他人家事 此豈國家之尊聖衛道之意哉 自今院任每值上丁 率境内儒生 先期齋會 釋奠後 本院祀事 行於中丁 庶幾彼此一體先後有倫也.

本院享禮 自有儀式 今不別具 但院長前期具修齊肅嚴潔 恪謹行事 如有不參之員 書于籍 有故無故並錄之 待後會面責 至七度不參者乃黜之 無故不參者五度而黜之 如有疾病廢病 所共知者 或出行遠方 及來遲者 皆不在此律 每於期望 在院儒生 盛服青襟 焚香再拜 於先生廟.

一. 〈尊院長〉

院長者 所以爲一院之長 而主盟倡道 以興起朋徒者也. 入院之士 所當尊畏矜式 不敢輕忽 而院長者 亦自端重 餘屬無自辱焉 院長之任 不可數數輕改 至有不得已之故 不容不改則自具狀告于院中 院中齊會商議改卜 新員不敢胡亂薦舉 必得衆所推服 一意敬信者 通可否無異辭 而後定之 既卜之後 院中具狀遺齊會中一人迎請 令新舊交代 凡院中規模曲折並皆諭告舉行 如書冊什物亦皆傳掌之 院長或有過誤行輩間 密相箴規 庶幾令不遠而復 面責損徒之罰 不敢加於院長 或所失者 大不復可安於院長之任 則院長必自引咎 而請改矣. 置院長錄 前後院長並書 任連年月 今後之任此者 庶幾有所披閱而欽戒也 有司亦書之.

一. 〈享祀를 성심껏 하는 일〉

향교는 실로 교육의 本源地이다. 그러나 근래 매우 퇴폐하여 비록 유식한 인사 역시 流俗에 스스로 섞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는 어찌 국가의 尊聖衛道하는 뜻이라 하랴. 이제부터 院任은 上丁마다 매번 향교 경내로 儒生을 인솔하여 儒生의 齋會를 先期하고 향교 釋奠이 끝난 후 本院의 享祀는 中丁에 행한다면 향교와 서원은 一體를 기하고 그 先後의 질서가 있을 것이다.

본 院의 享禮는 원래부터 儀式이 있으나 여기서서는 따로 적지 않는다. 다만 院長은 前期하여 주선하되 齊肅嚴潔토록 하고 각별히 行事에 성력을 다하도록 한다. 만약 不參하는 자는 장부에 기록하고 有故·無故를 아울러 적되, 뒷날 儒會에서 面責한다. 7번이나 불참한자는 서원에서 추방하고 까닭 없이 5번을 불참한 자도 추방한다. 만약 여러 사람이 아는 질병에 걸렸거나, 먼 곳으로 여행을 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는 모두 이 律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 期望마다 在院 儒生을 靑襟을 맨채임고 先生廟에 분향 재배 한다.

一. 〈院長은 존경하는 일〉

院長은 一院의 長이기 때문에 倡道의 主盟이고 학도를 흥기 시키는 사람이다. 入院하는 선비는 마땅히 矜式으로서 尊畏하고 감히 輕忽히 해서는 안된다. 院長 또한 스스로 端重하여 조금이라도 스스로 욕됨이 있어서는 안된다. 院長職은 자주 가별게 갈아서는 안된다. 부득이 개선헌지 않으면 안될 경우는 具狀하여 院中에 告하고 院中 齋會에서 상의하여 改選한다. 새로 참석한 자가 감히 어지럽게 천거하지 못한다. 可否에 異論이 없게 되어야 정한다. 일단 정하고 나면 齊會 가운데 한사람을 보내어 맞아들이고 新舊交代 시에는 모든 院中의 규모곡절을 아울러 諭告하여 거행하고 책과 집물 역시 傳掌한다. 원장에게 과실이 있을 것 같으면 行輩 간에 은밀히 箴規하여 곧 고치도록 한다. 面責이나 損徒의 벌을 원장에게 감히 내리지 않는다. 혹시 형실을 잃어서 원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院長은 반드시 스스로의 허물을 자

62) 「全書」(上) 讀集, 卷四, 〈雜著〉, 「院規」, pp. 301~303. (62에서 지음)

一. 〈擇有司〉

有司者 亦所以管攝一院之事者也 院長與院中同議擇之 必得純謹精詳之人任之 庶幾同心共治一院之事 如有用心蠱悖 不肯盡心力於院事 或濫冒無恥 多惹外說者 小則院長飭之 大則院中責之 終不俊者 院長與院中 同議黜之.

一. 〈引新進〉

每於享祀之日 議引新進每人各薦一員 進于院長 如無可薦 不必可舉 院長通可否採衆議而定之 如用可否則宜只取純點書于案(各於名下書所引之人) 凡所薦進 必二十歲以後 有學行可觀者 雖未滿弱冠而司馬入格 或累中鄉舉 而才行超異 可齒三益之列者(大槩只觀學行成就之如何 豈可拘拘於科學之得失耶 既擇之後院長具書迎之)

入院之士 如有行實不修 舉止踰違者 輕則院長糾之 重則院中責之 用心滅裂 終不肯改者 院長與院中 齊議黜之 前日所引之人 並行損徒之罰 庶幾引進之際 有所慎重 而不敢輕舉(噫孟子曰 觀遠臣以其所爲主觀 近臣以其所主後人之觀 比錄者其所引之如何 而其人邪正得失 亦將難逃矣 宜各謹慎 勉勵無相爲累) 志氣衰惰 不復能振者 或已經鄉任不肯從事於問學者 並聽出院

遠方之士 如有願入者 雖無引之者 學行成就 而別無願失者 亦許入

新學小兒 凡在二十歲以下者 皆聽養蒙齋入學 雖二十歲以後 未及入院之選 而願入養蒙齋者亦聽

引하여 갈아줄 것을 청한다. 院長錄을 비치하여 前後 院長과 그 임기를 아울러 기록하고 다음이 이 일을 맡는 사람이 열람하기 쉽게 하고 또 敦 疲토록 한다. 有司 또한 기록한다.

一. 〈有司를 뽑는 일〉

有司 또한 一院을 管攝하는 者이기 때문에 원장과 院中이 같이 상의하여 선택하되 반드시 純謹精詳한 사람에게 맡긴다. 서로 가까이 한 마음으로 함께 一院之事에 봉사한다. 만약 마음씀이 추패하고 院事에 힘을 다하지 않거나 濫冒無恥하여 소문이 좋지 않은 자에게는 작은 일이면 원장이 신칙하고 큰 일이면 院中에서 꾸짖고 끝내 고치지 못하는 자는 원장과 院中이 같이 상의 하여 추방한다.

一. 〈新進을 추진하는 일〉

매년 향사일에 新進을 의논하여 추천한다. 每人이 한 사람씩 자기 추천하여 원장에게 품신한다. 만약 천거할 사람이 없거나 천거할 필요가 없다면 원장이 衆議를 채택하여 可否의 투표를 거쳐 정한다. 투표를 할 경우에는 단지 「純」점을 맞은 사람을 택하고 儒案에 적는다.(각 사람의 이름 밑에 추천자를 쓴다)

무릇 추천된 新進은 반드시 20세를 넘고 學行이 두드러진 자여야 한다. 비록 弱冠에 이르지 않더라도 司馬試에 합격하였거나 鄉舉에 여러번 합격하고 才行이 뛰어난 자는 三益(※論語의 '益者三益')의列에 넣을 수 있다.(대개 다만 學行의 성취가 어떠한가를 과거의 합격여부로부터 볼 수 있겠는가? 택한 다음에 院長이 具書하여 맞이 한다.) 入院 院生이 만약 행실을 닦지 않고 행동거지가 어긋나면 가벼운 경우에는 원장이 규찰하고 두거우면 院中에서 面責한다. 用心하기 滅裂하여 끝내 고치려 하지 않는 자는 齊議로 내쫓는다. 따라서 추천할 때는 신중히하여 가볍게 추천해서는 안된다.(아, 맹자께서 이르기를, 먼곳의 신하를 알려면 그가 僞主로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고 가까운 신하를 알려면 그가 所主하는 것을 보라고 하였는데, 이를 기록하는 것은 그를 추천한 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邪正得失이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각자 근신하고 힘써서 누를 서로 끼치지 말아야 한다.) 志氣가 쇠잔하여 다시 능히 떨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鄉任을 지내고 나서 問學者를 가르치는 데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울러 出院토록 한다.

遠方의 선비로서 入院을 희망하는 자는 비록 추천인이 없더라도 學行이 성취되고 별달리 두

一. 〈定坐次〉

坐必序齒 若有異爵者 或有他客 並皆別序 養蒙齋生 並坐南行.

一. 〈勤講習〉

院長迎請朋徒 不廢勸講 冬春五經四書與伊洛諸性理之書 夏秋史學子集 任其所讀 夫入院之士 雖不能不爲科舉之事 而科舉之外 亦有古人所謂爲己之學者 苟能不全爲彼所奪 而或能用心於此焉 而求之於日用 性分之內則其存心之用力之方 庶幾不越乎 敬之一字矣 伊川夫子 始表章之 而雲谷夫子大發明之

寒喧堂一生辛苦 皆是此字 願與諸君 共勉勉 而不敢已也 凡入院之士 必須戰兢自持 衣冠必飭 言笑必莊 凡戲謔喧譁 狎侮鄙薄之態 皆不敢近 白鹿學規 揭在楹間 宜朝夕觀瞻 以爲勗率之地 而又略做呂氏鄉約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庶幾無負 今日責望之意

朝廷利害 邊報差除 州縣官員 長短得失 衆人所作過惡 皆不得言之

淫媒娼 不正之言 干索食物 無恥之事 皆不得爲之(干索食物 如今學中 所謂 後接禮歸家禮等事皆是) 如今學中倒懸乘 風擊膝舉 凡凡諸鄙狎之事 皆不得爲之

持志制行 宜和厚勤慎 凡在尚氣喜激之事 皆不得爲之 蓋聖賢之學 初不在於任氣輕俠 狂言妄語 咬得菜根自是儒者本分內事 院長饒鑒之事 土生養育之誠 固不敢忽 而入院之士 則不可自去 理會取舍 以損其德性也

養蒙諸生 必命蚤起 晏夜誦習小學 嚴立課程 痛加繩糾 拜有度辭 氣謙遜庶幾入學之初 純熟禮儀而有所進就也

足容必重 手容必恭 目容必端 口容必止 聲容必靜 頭容必直 氣容必肅 立容必德 色容必莊 坐必端 直行必舒 恭 入院之士固不敢不勉 而養蒙諸生 尤加警飭 又今揭其惡壁出入觀省

群居講習之士 固不敢廢 而誘掖作成之方 實在土主 暇日來會 倡率諸生 講明古人之學 而勸導之 則感慕効之 間自有成就興起之 不可言者矣

古人設院之意 所以避朝市 城郭之閑 置寬閑寂寞之境 庶幾官家法令 不相拘掣 隱居抱道之士 或相往來講說 而無所不屑 而斯文朋徒得以樂聚 而興

드러진 허물이 없으면 許入 한다.

新學의 小兒로서 20세 이하인 자는 모두 養蒙齋에 入學시킨다. 비록 20세 이후로서 入院의 選에 未及하여도 養蒙齋에 入學할 것을 원하면 허락한다.

一. 〈座次를 메기는 일〉

坐次는 나이 순서대로 한다. 만약 官等이 다르거나 他客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차례를 정한다. 養蒙齋生은 모두 南쪽에 서게 한다.

一. 〈講習을 勤獎하는 일〉

院長은 諸生을 불러드려 교육을 권장하기를 마치 아니하여야 한다. 겨울·봄에는 五經四書와 程朱 性理의 책을 읽고, 여름·가을에는 史學과 子集을 정도에 맞게 읽힌다. 비록 과거공부는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과거 밖에도 古人이 말한 바 爲己之學이라는 것이 있다. 비록 능히 여기에 전심전력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기에 用心하여야 한다. 爲己의 學은 日用事에서 求하며 마음 속에는 存心用力하는 방도는 「敬」이라는 글 한 字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程伊川께서 이를 비로소 表章하였고 朱子께서 크게 發明하였으되 寒喧堂이 一生동안 애쓰신 것이 모두 이 글자이다. 원컨대 諸君들은 함께 면려하여 감히 어기지 말 것이다. 무릇 入院之士는 반드시 스스로 조심토록하며 의관을 신칙한다. 답소하는 것은 반드시 장중히 하고 놀이와 장난과 같은 비천한 짓거리에서 빠지는 모습은 모두 「白鹿學規」와는 먼 것이니 이 학규를 楹間에 걸어두고 아침저녁으로 우려했어 보는 것은 이 곳이 덕업을 닦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呂氏鄉約을 본따서 德業相勸·過失相規·禮俗相交·患難相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채근하며 바라는 것을 어기지 않기 위함이다.

조정의 이해와 변방의 일, 또는 관원의 任免 및 지방관리에 대한 장단점을 논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나쁘게 평가한 것이니 말하여서는 안된다. 여색에 관한 음탕한 말이나 바르지 못한 말과 음식물을 干索하는 일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니 모두 하여서는 안된다.(음식을 수탈하는 일은 오늘날 鄉學에서 이른바 後接·禮歸·家禮와 같은 일들이다) 오늘날 鄉學은 잘못된 풍습이 지나치게 불어닥쳐서 여러가지 비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같은 일은 하여서는 안된다.

대개 儒學은 처음부터 기운이 날래고 민첩하거나 허튼 말과 망녕스러운 말을 하는데 있지 아니하여 마치 菜根을 씹듯 담백한 것에 儒者의

起焉 則守令勤課之政 初不相與 而朝廷右文之化 自有浸漸不覺之効矣.

본분이 있는 것이다. 院長을 공배하는 일도 土產物로 정성되어 하여 소홀히 하지 말 것이며 入院한 諸生 역시 제멋대로 理會取捨하여 덕성을 손상하여서는 안된다.

養蒙齋의 諸生들에게는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여 침구를 정돈하고 小學을誦習토록 하며 課程을 엄히 지켜서 더욱 규율을 엄히 한다. 晝과 拜는 절도 있게 辭氣는 겸손히 하도록 하여 入學初부터 예의를 純熟하게 하면 성취함이 있을 것이다.

다리는 무겁게 손은 공손하게, 눈은 단정하게, 입을 다물게, 목소리는 고요하게, 머리는 곧게 기색은 엄숙하게, 서기는 덕성스럽게, 걸기는 천

천히 공손하게 하여 入院之士는 물론 힘쓸 일 이거니와 養蒙齋의 어린 諸生들은 이를 더욱 힘쓸 것이다. 이러한 九容을 窓壁에 걸어두고 출입할 때 觀省케 한다. 함께 생활하는 講習生은 人材養成의 방도로서 실로 없애지 못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책임은 지방수령에게 있다. 쉬는 날 찾아와서 諸生을 倡率하고 옛 사람의 學問은 講明토록 勸導한다면 古人을 본받게 되어 감발 성취하는 자가 있을 것이 틀림이 없다.

서원 교육의 뜻은 저자거리나 시끄러운 도시를 피하여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두려는 까닭이니 처음부터 관청의 법령으로 규제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山林에 숨어 있는 높은 선비가 때로 왕래하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講說하고 斯文의 朋徒들이 즐겨 모이면 흥기함이 있을 것이니 守令의 勤課하는 정사와는 처음에는 서로 상관이 없는 듯하지만, 결국은 조정에서 文教를 장려하려는 教化가 이로부터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효과가 차츰 번져나가게 될 것이다.

一. 〈어진 선비를 예우하기〉

혹 境內에 있거나, 혹 가까운 고을에 살면서 致事하여 退伏한 어진 사람이라거나. 또는 樂道하는 高尚한 선비가 어찌 없겠는가 院長은 마땅히 朋徒를 거느리고 예의로써 맞이하여 스승으로 높이던면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慕悅할 것이다. 이 보다 좋은 일이 있으랴. 실로 이 말이 행하여 진다면 빈 말로만 그치게 될 것이다.

一. 〈금지 사항을 엄히〉

莊子·老子·佛經 등 책과 바둑·장기 놀이는 하여서는 안된다.

모든 異色之人(異色이란 武夫나 雜術家이다)은 출입할 수 없다.

祭酒 이외는 술을 빚어서는 안된다.

一. 〈禮賢士〉

或在境內 或住隣邑 或致事退伏之賢 或樂道高尚之士 豈無人哉 院長宜率朋徒以禮迎請 而尊之 庶幾有所觀感 而慕悅之 則其可勝言哉 苟能行之 此言 夫空言而止哉.

一. 〈嚴禁防〉

- 莊別老釋之書 碁局博奕之戲 不得入院
- 凡異色之人 皆不得出入(異色如武夫雜術之徒)
- 清酌之外 不得饌酒
- 尹祭之外 不得殺牛
- 婢子不得出入齋堂壘進止

○如修字點書 考稟會討等條 自有盧侯之規 可以遵守 令不復云

犧牲(祭需) 이외로 소를 잡아서는 안된다.
계집 증이 齋·堂·硯 등에 나와서는 안된다.
「修字占書」·「考稟會討」와 같은 놀이와 모임은 盧侯때 부터 내려오는 禁規이므로 준수할 만하다. 다시 거듭 말하지 않는다.

라. 「契會立議」⁶³⁾ (鄉學契：社會教育의 절차)

- 約中規目 一從 呂氏之舊 不可護以古今異宜
 - 如有願入者 告于直月 直月告在座 必衆許然後書于籍而入之
 - 道里在三十里內者 每月朔來會 三十里外者 唯赴孟朔 其間或能逐朔來預則尤善
 - 會日相聚 須及早朝 若後生少年則 宜先來詣無後尊長
 - 或非衆所共知 切迫不得已之故 而假托不參者 論如犯約之過 書于籍
 - 讀法訖 參講朱子白鹿洞規
 - 會日 須相考一朔所習之業
- 學者一日有一日工夫 一月有一月工夫
※ 呂氏學規 肄業當有常日記所習于簿 多寡隨意 如遇幹輟業亦書于簿 一歲無過百日過百日者 同志共擯之
※ 三十歲以前 背誦以後 臨文說講
- 會日 或值天雨 則當權停待晴 直月告于約正 更期日而會之
 - 期大功未葬者 許不赴會
 - 四孟朔日 既赴約會 則雖兼修禮 見當權宜停之
 - 凡吉凶相助之事 本家告于直月 或其近居者 告于直月(或值日自知之 不必待告) 直月 稟于約正 而定數力有大小 分有厚薄 並宜參量 亦須斟酌 本家之勢
 - 凡回文 次次相傳 各書時刻 於其下 無或小滯滯有犯約之過(終到之人 持以納于契會之日 仍檢遽傳敏慢)
 - 雖已入約 而泛然隨參無意 振發悠悠時日 無所進益者 聽其出約 或不能文 而有好善修行之實者 可以許入
 - 入約之人 各自敦飭 讀書修行 雖學有淺深 才有高下 而要其志趣 必學古人 必正其義 而不謀其利 必明其道 而不計其功 勿汲汲於富貴 戚戚於貧賤 庶幾有儒者氣味 節拍處 苟不能如此 已非吾輩中人 雖無約中之罰 亦何以冒昧隨參以爲吾約羣哉 凡約中諸君 胥警焉(正誼明道者儒 計較利害者 非儒)
 - 進德謹行之目 已盡於德業相勸之條 只要熟玩 勉

- 「約」의 規目은 呂氏鄉約을 따른다. 古속이 다르다는 핑계를 하여서는 안된다.
 - 契에 入會할 것을 원하는 자는 直月에게 고하고 直月은 계원에게 알려져 다수의 허락을 얻은 다음에라야 장부에 적어 입회시킨다.
 - 거리가 30리 이내인 자는 매달 朔에 來會하고 30리 밖인자는 孟朔에만 나온다. 그 동안 매朔마다 나올 수 있다면 더욱 좋다.
 - 會日에는 이른 아침에 서로 모인다. 나이 어린 소년들은 마땅히 먼저 참례하고 尊長 뒤에 와서는 안된다.
 - 혹 여러사람이 안지 못하는 부득이한 일 때문이었다고 가탁하여 참석하지 않은 자는 犯約한 과실로 논하여 장부에 적는다.
 - 讀法을 마치면 朱子의 白鹿洞規를 參講한다.
 - 會日에는 반드시 一朔동안 학습한 바를 相考한다.
- 배우는 사람에게는 하루에 하루의 공부가 있고 한 달에는 한달의 공부가 있다. 呂氏의 學規에 의하면, 학습한 것은 마땅히 하루 하루 배운 것을 장부에 적게 되었는배 학습량이 많고 적은 것은 상관 없으나 학습을 중단한 것은 역시 장부에 기재한다. 일년에 학업중단이 1백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백날을 넘기는 자는 동지들이 함께하여 꾸짖는다. 30살 이전은 背誦(안보고 책을 외는 것) 한 뒤 臨文(보고 읽는 것)하여 說講한다.
- 會日에 비가 내리면 임시 휴회하고 비가 개이기를 기다린다. 直月이 約正에게 고하여 다시 날을 잡아 모인다.
 - 4번 孟朔일은 이미 約會하였더라도 겸하여 修禮하기 힘드므로 임시 휴회 한다.
 - 모든 吉凶相助의 일은 本家에서 直月에게 고하거나 이웃 사람이 直月에게 고한다.(절로 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直月은 約正에게 아뢰다. 그리하여 數力의 大小를 정하고 厚薄을 나누되 本家의 형편에 따라 參量 집작한다..
 - 모든 回文은 사발통문식으로 하고 받은 시각

63) 「全書」(上), 卷九, 〈雜著〉, 「契會立議」, pp. 167~169. (41세기 지음)

行而已 然吾同約之人 尤須激昂於子路義勇氣象
(子路曰願車馬衣輕裘與朋友共敝之而無憾 子曰
衣敝履穿與衣狐貉者 立而不恥者 其由也歟) 超
然脫灑於勢利 不以貧富動其心然後 可以消人欲
而進天理矣.

吾同約之人 盍相與勉之哉 周子曰 銖視軒冕 泥
視富貴學者須知此意 方不碌碌矣.

周子非謂輕視貴人也 軒冕富貴人所爭慕 而自道
義顯之 曾不若乎銖 泥如富貴浮雲之意 云爾若
有爵貴人 則亦達尊可敬 世間尚氣後生或有 偃蹇
陵轢 自以爲高殊非學者氣象 吾輩之中 豈有是哉

을 이룰 밑에 쓴다. 조금이라도 늦추어서 犯
約의 과실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일 나중에
받은 사람이 契會 날에 갖고 가서 돌림의 빠
르고 늦음을 검사한다.)

◦ 비록 이미 入約하였더라도 범연하여 자주 참
석할 뜻이 없고 학습의욕이 없어 성취함이 없
는 자는 出約토록 한다. 또 글은 잘하지 못
하지만 착함을 좋아하여 修行의 실적이 있는
자는 入約시킨다.

◦ 入約한 자는 자자 敦飭하여 독서 수행 한다. 비
록 배움에는 깊고 얕음이 있고 재주에는 높고
낮음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義를 바르게 하여
利를 꾀하지 말 것이며, 그 道를 밝히되 그 功
을 따지지 말고 富貴에 허덕이지 않고 貧賤에
마음 쓰지 않아야 선비의 기상이 있다 할 것
이니 節拍處에 진실로 이치됨 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의 무리일 수 없다. 비록 約中の 罰
이 없다고 하여 어찌 冒昧롭게 隨參하여 우리
들의 約에 부끄러움을 끼치랴. 約中の 모든 사
람은 다 함께 경계할지니라. (正誼明道하는 사
람을 儒라 하고. 利害를 計較하는 자는 非儒
이다)

◦ 進德謹行하는 절목은 「德業相勸」의 조목에 다
들어 있다. 다만 熟玩하여 힘써 행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 同約人은 더욱 발분하여 子路의
義勇氣象을 닦아야 할 것이다. 「子路가 이르되
「바라건대 벗들과 함께, 수레를 타고 좋은 옷
을 입을 수 있다면 원이 없겠읍니다」하니 孔
子께서는 「훌륭한 옷을 입고 나서 부끄러워 하
지 않을 사람은 子路(由) 너이로구나」하였다.
勢利에 초연히 벗어나고 貧富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다음에라야 人欲을 없앨 수 있
고 나아가 天理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
리 同約人은 모두 서로 힘쓸지어다. 周子가
말하기를 銖를 보기를 軒冕과 같이 하고 泥를
보기를 富貴와 같이 하라 하였으니 모름지기
學者는 이 뜻을 알아야만 바야흐로 碌碌하지
않을 것이다.

(周子가 貴人을 가볍게 본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軒冕은 富貴한 사람이 닦아서 사모하는 것
인데 道義로 볼것 같으면 한 갓(銖)에 지나
지 않는 것이다. 泥는 부귀가 뜬 구름 같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有爵貴人일 것 같
으면 남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인데 세상에
서는 기세만을 숭상하여 後生 가운데서 우뚝
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스스로 높은 듯
생각하나 이는 學者의 기상이라 할 수 없다.
吾輩 가운데 어찌 이러한 사람이 있으랴.

學者平時 宴坐說話 稍有可觀 及見臨小利害 便爲所奪精神都喪手足盡露 此古今通患 夫讀書而爲儒 孰不欲求如古人 自後人觀之 其果能終始無愧而得爲完人者實鮮 究厥所以未有失步於利害之初歧 而竟至於顛沛 而無可收拾處 雖情有輕重敗有大小 其失其本心 而爲吾儒之羞 或則○也 嘗竊思之一毫之失 千金之得 何足以動吾之衷中 而不能豎立 自棄至此 而終不能覺悟者何耶 嘗之誠切痛心 預告吾約中諸君 須常加戒 毋見羊皮 忘我疏琬 古人能破千金 而失聲釜 眞情所露 亦不在大君子觀人之法 實寓於造次幾微之際 此又豈不嚴 且可懼哉 唯常存此心於道義之中 直養無害 令本心浩然發皆灑落 則庶幾可以自保矣 此亦本非苟難 亦非別有方法 又不得不如是 吾約中諸君既以古人相期 何可不相勉焉耶。(○字：未詳)

※ 聖人之聖 賢人之賢 蓋非高遠異常 如昇天梯空之爲實 人理當然 如男耕女織 職分常事 只緣人自不察不能自修 知者既鮮 行者尤鮮 舉世昏昏濁浪滔滔 間或見有奮發願學之人 獨異於衆 同之中則 競相指目 怪異齟齬 如新見蜀日越雪焉 夫豈知彼眞能爲 吾之所當爲 而我實誤入狼狽 自彼入觀之 爲眞可笑可憐之甚乎 苟欲爲之 實能爲之 如不已焉 終有所到 如新生之木 母傷其長 則必至參天 新種之稼 母傷其美則 必至成熟

평상시에 學者가 宴坐·話話 할 때는 자못 취할 겸이 있어야 하는데 조그마한 일에도 利害를 따져 문득 경진을 빼앗기고 手足을 다 들어내니 이것이 古속의 공통된 병이다. 두루 독서하여 儒가 되는 일을 위하여 古人처럼 되려고 하지 않으랴. 뭇 사람이 볼 것 같으면, 그가 과연 능히 시종 부끄러움이 없는 完人이 된 사람은 실로 적다. 이 이치를 따져보면 利害가 엇갈릴 때 발을 헛디뎈 마침내 수렁으로 빠져 수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비록 그 사정에는 경중이 있고 그 실패에는 大小가 있어서 本心を 잃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은 吾儒의 부끄러움이다. (한 자 빠짐)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一毫를 버리고 千金을 얻는다한들 어찌 나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으며 마침내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자포자기하여 끝내 깨닫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실로 절통하다. 우리 約中諸君에게 부탁하노니 늘상 加戒하길 ‘羊皮를 보지 말고 나의 疏琬을 잊으라’ 한다.

古人은 千金을 능히 깨뜨려 釜를 失聲하였다니 眞情에서 나온 것이나 또한 큰 君子는 아니다. 觀人하는 法은 실로 ‘순간의 겁새’(造次幾微)에 깃드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엄숙하고 두렵지 않은 말이랴. 오직 이 마음을 道義 가운데 지니고 거스림 없이 直養하여 本心を 浩然히 하면 해락래져서 어느듯 스스로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원래 어렵거나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約中의 諸君은 이미 古人을 서로 기약 하였으니 어찌 서로 험쓰지 않을까 보나.

※ 성인이 성인되고, 현인이 현인 되는 것은 모두 昇天하여 공중에 매달리듯 高遠 異常한 일이 아니다. 人理의 當然함이다. 남자는 김매고 여자는 길삼하듯 職分의 예사로운 일이다. 다만 사람에게 따라서 스스로 自修하기를 不察 不能하여 이를 아는 자는 드물고 더구나 행하는 자는 더욱 적다. 세상이 모두 어지러워 탁한 물결이 넘실거리는데, 간혹 분발하여 願學하는 사람이 보이지만 오직 그가 무리들과 다르고, 무리 가운데 있으면 서로 다투어 指目하기를 이상 야릇하게 보아서 마치 蜀나라 사람이 해를 처음 보듯 하고 越나라 사람이 눈(雪)을 처음 보듯 한다.

어찌 그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으랴. 우리도 마땅히 하여야 할 바이지만 실제로 길을 잘못들어 낭패하고야 만다. 그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 참으로 가소롭고 가련하기 이룰데 없는

惟欲爲之心與不已之功 爲貴焉爾 是故人必言立志 有爲君子之所以爲君子 常人之所以爲常人 莫不由有志與無志判焉 伊尹初無任天下之志則 不過爲莘野之一耕夫 顏淵初無慕仲尼之志則 何由三月仁於陋巷之中乎 況吾同約之人 皆孟子所謂可以爲堯舜之人也 須各自憤立志自力不已焉則 安知於吾黨之中 而亦有見鸞鳳之樂 不改之操乎 年固有高下之各異 質固有鈍敏之不齊 且不見武公之九十 曾子之質魯乎

所患只欠抑戒之 自警三省之篤實焉 爾各從現今地頭 毋勞追悔於既往莫恨資稟之不及 唯當刻心自勵 百倍其功 脫落舊習 變化氣質則 今人何患 不及古人乎 高可爲聖賢 下不失爲吉人善士 唯吾用力如何 耳不唯有以答 受中以生之責 而參立於天地之間 抑內慰門戶父兄之所望 外副朋儕契約之本意 不亦快哉 不亦樂乎 願吾黨諸賢 思有以如是而必有以如是 須先立志 以爲舜何人哉 有爲者若是焉 不驕拳拳 相愛之至誠云爾

것이다. 진실로 되고 싶어도 마침내 이루지 못하고야 만다.

新生の 나무는 그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까지 다다르게 되고, 새로 심은 씨앗은 그 養生을 해치지 않으면 반드시 성숙하고야 만다.

다만 하고픈 마음만 있고 공력을 쌓지 않고서 귀하게 되려고만 한다.

이러므로 옛 사람은 반드시 <立志>를 말하였다. 有爲한 군자가 되는 까닭과 범상한 사람이 되는 까닭은 有志나 無志나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다. 伊尹에게 처음부터 天下를 맡을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莘野의 一耕夫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顏淵이 처음부터 孔子를 본받을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陋巷에서 석달이나마 仁을 체득하였을 것인가.

하물며 우리 同約人은 모두 孟子가 말한 바. 사람은 누구나 堯舜과 같은 聖人이 될 수 있으니, 모름지기 각자 본발 立志하여 힘써 노력한다면, 어찌 吾黨 가운데서도 樂道操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없겠는가. 나이는 실로 高下의 차이가 있고 사람의 바탕은 실로 鈍敏이 다르지 않지만 武公의 90세 나이와 曾子의 바탕을 보지 않는가.

두려운 일은 다만 抑戒함이 없고 自警三省의 독실함이 없음이다. 그대들은 자기 현재 입장에서 지난 날을 지나치게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말 것이며 資稟이 못미친다고도 하지 말 것이다.

다만 마땅히 스스로 힘쓸 것을 다음에 새겨서 그 공력을 백배나 더하던 舊習이 脫落되고 氣質이 변화될 것이니, 이제 사람이 옛 사람에 제 못미친다는 것만을 어찌 근심하라. 위로는 聖賢이 되고 아래로 失行하지 않으면 用力如何로 吉人善士가 된다. 다만 건성으로 답하지 않고 삶의 책임을 다하던 天地간에 우뚝서서 포리어 안으로는 門戶와 父兄의 소망을 위로하고 밖으로는 벗들과의 약속한 본 뜻에 부응하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까 보냐? 원컨대 吾黨의 諸賢은 이같이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같이 되리니, 모름지기 먼저 立志하기를, 舜은 누구인가? 라고 하라. 有爲한 사람은 이처럼 되리니 至誠으로 拳拳相愛하여 마지 않을 것이로다.

마. 「月朝約會儀」⁶⁴⁾ (鄉飲酒禮)

64) 「全書」(上), 卷九<雜著>, 「月朝約會儀」, pp. 169~170. (51세 辛 晩年作)

會日夙興約正副正直月皆深衣來會／以長少拜于東序／設先聖先師之像于北壁下／同約者如其服而至俟於外次／既集以齒爲序立於門外東向北上／約正以下出門西向北上（約正與最尊者正相向）／揖迎入門 至庭中北面／皆再拜／約正升堂上向／降（約正升降皆白階）／與在位者皆再拜／藏先聖先師之像／揖分東西向立／約正三揖 客三讓／約正先升 客從之（約正以下 升自階 餘人升自西階）／皆北面立／約正少進西向立 副正直月次其右少退／直月引尊者東向北上（以約正之年推後做此）／長者西向北上（在約正之後少進）／約正再拜 在位者皆再拜（此拜尊者）尊者受禮如儀（跪而扶之・唯以約正之年爲受禮之節）／尊者退北壁下南向東上立／直月引長者 東向北上／約正與在位者皆再拜（此拜長者尊・者不拜）／長者受禮如儀（跪而答其半）長者退立於尊者之西東上／直月引稍長者東向北上／約正與在位者皆再拜（此拜稍長者尊者長者不拜）／稍長者答拜（俟其俯伏而答之）退立於西序東向北上／直月引稍少者東面北上／拜約正 約正答之（俟其俯伏而答之）／稍少者退立于稍長者之南／直月以次引少者 東北向西北上／拜約正 約正跪而扶之／拜者復位／既畢攝各就次（同列未講禮者拜於西序如初）頃之約正攝就坐

約正坐堂東南向 約中年最尊者坐堂西南向 副正直月 次約正之東南向西上 餘人以齒爲序東西相向 以北爲上 若有異爵者則坐於尊者之西南向東上 同約之子弟 別爲一行坐

／直月抗聲讀約一過 副正推說其意 未達者許其質問（或以朱子白鹿洞規・童蒙須知・遺子帖・訓蒙十訓・呂氏格言等篇參講 或約正別爲說以講亦不妨）／於是 約中有善者 衆推之 有過者直月糾之 約正詢其實狀于中 無異辭 乃命直月書之 直月遂讀記善籍 過命執事以記過籍遍呈 在坐各默觀一過既畢乃食 食畢少休 復會于堂上 設書或 習射講論從容／至脯乃退 凡燕集初 座別設卓于兩楹間 置大杯於其上 主人降席 立於卓東西向上 客亦降席立於卓西東向主 取杯親洗上 客辭 主人置杯於卓上親執酒斯之以器 授執事者遂執杯以獻上客 上客受之復置卓上 主人西向再拜 上客東向再拜 與取酒東向跪 祭酒遂飲以杯 授贊者遂拜主人答拜（若少者以下爲客飲畢而拜則 主人跪受如常／上客酢 主人如前儀 主人乃獻衆賓如前儀 唯獻酒不拜（若衆賓中有齒爵者・則特獻如上客之儀不酢）

會日, 일찍 일어나고 約正・副正・直月は 深衣를 입고 술에 나간다.／長에게 少가 절한다. 東쪽에 자리잡는다.／先聖・先師의 像을 北壁下에 설치한다.／同約者들이 옷을 입고 外次에서 대기한다.／다 모이면 나이 순서대로 門外의 東向北上하여 선다.／約正 이하 出門하고 西向北上한다.（約正과 最尊者是 맞 바로 향한다）／문안으로 迎揖하여 뜰 가운데 이르러 北面한다.／모두 두 번 절한다.／約正이 升堂하고 上向한다.／내려 온다.（約正이 升降은 모두 階階이다）／在位者는 모두 再拜한다.／先聖先師의 像을 갈무리 한다.／東西로 나누어揖하여 마주한다.／約正이 三揖하고 客은 三讓한다.／約正이 먼저 堂에 오르고 客이 따른다.（約正이하는 階階로 그밖은 曲階이다）／모두 北面하여 선다.／約正이 조금 나아가 西向하여 서고, 副正과 直月の 차례로 그 오른 쪽에 조금 물러선다.／直月이 尊者를 인도하여 東向北上 한다.（約正의 나이를 미루어 보고 이렇게 한다）／長者는 西向北上 한다.（約正의 뒤로 조금 물러선다）／約正이 再拜하던 在位者가 모두 再拜한다.（尊者에 대한 拜이다）尊者는 법식대로 禮를 받는다.（한발은 꿇고 한발은 굽춘다. 다만 約正의 나이에 따라 受禮의 절차가 다르다.／尊者가 北壁으로 물러나서 南向東上에 선다.／直月이 長者를 인도하여 東向하여 南上한다.／約正과 在位者가 모두 再拜한다.（이는 長者에 대한 拜이다. 尊者는 절하지 않는다）／長者는 법식대로 예를 받는다.（跪하나 반절）長者가 尊者의 西東上에 물러선다.／直月이 稍長者를 인도하여 東向으로 南上한다.／約正과 在位者 모두 再拜한다.（尊者長者는 절하지 않는다）／稍長者가 담배 한다.（부복한 것을 기다려 답한다）西序로 물러나서 東向으로 北上한다.／直月이 다시 稍少者를 인도하여 東面하여 北上한다.／約正에게 절하고 約正이 답한다（부복한 것을 기다려 답한다）／稍少者가 稍長者의 남쪽으로 물러선다.／直月이 少者를 차례로 인도하고 東北向하여 西北上 한다.／約正에게 절하고 約正은 한발은 跪하고 한발로 굽쳐세운다.／拜者가 제 자리로 간다.／揖이 끝나면 각자 차례를 잡는다.（禮者는 西序에 처음대로 절한다）이 때 約正도揖하고 자리한다.

約正은 東南向으로 앉고, 約中의 最尊者是 堂의 西南向에 앉고 副正과 直月은 約正의 다음에 東南向하여 西上한다. 나머지는 나이 순서대로 東西로 마주하고 北上한다. 만약 벼슬을 한 자가 있으면 尊者의 西南向으로 東上하여 앉는다. 同約의 子弟는 따로 한 줄로 앉는다.

／直月이 소리높이 한번 讀約한다. 副正이 그 뜻을 推說한다. 못개친 자에게 질문을 허락한다. (朱子의 白鹿洞規・童蒙須知・遺子帖・訓蒙十訓 呂氏格言 등을 參講할 수 있다.)／約中에 善行者가 있으면 여럿이 추천하고, 過失者가 있으면 直月이 규찰한다. 約正이 그 진상을 約中에 자문하여 별다른 의의가 없다면 直月에게 명하여 過簿에 기록한다. 直月이 곧 「善籍」을 한차례 읽고 執事에게 명하여 「過籍」에 기록하여 여럿에게 보인다. 約員은 자기 한차례씩 默觀한 뒤 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난 뒤 잠시 紳 후 堂上에서 속회한다. 조용히 說書・習射・講論 한다.／오후 4~6시(晡)에 끝마친다. 두루 燕集 초에 양쪽 누마루에 탁자를 따로 마련하고 그 위에 큰 잔을 놓아둔다. 主人이 탁자 東西向上에 서고, 客이 또한 탁자 西東向에 선다. 主人이 잔을 몸소 씻어 잡는다. 上客이 사양한다. 主人이 탁자 위에 둔 잔을 몸소 잡고 그릇에 술을 붓고 집사에게 주어 客에게 바친다. 上客이 받고 다시 탁자 위에 놓는다. 主人이 西向하여 재배하면 上客이 東向하여 재배한다. 술잔을 들어 東向으로 跪하고 祭酒를 마신다. 贊者에게 주면 主人이 答拜한다. (若少者 이하가 客을 위하여 마시고 나서 절하면 主人은 전처럼 跪受한다.)／上客이 안주를 먹으면 主人은 앞의 절차처럼 한다. 主人이 여러 손님에 앞의 절차처럼 술잔을 바친다. 다만 獻酒만 하고 절하지는 않는다. (衆賓가운데 나이 많거나 벼슬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上客에게 한 절차처럼 특별히 獻酒한다. 안주는 없다)

위 다섯가지 「節次」의 作成은 「契會立議」・「月朔約會儀」・「院規」・「講法」 및 「通讀會儀」의 순이다. 「契會立議」는 41세 때(선조 16년 1583) 檜淵書堂을 세운 뒤 문학생들에게 月朔講會契를 만들게 하고 「月朔約會儀」를 짓는 한편 이契의 규정을 제정하였다.⁶⁵⁾ 이 무렵 寒岡은 첫 出仕였던 昌寧縣監을 일년 반 만에 사직하고 향리에 은거하면서 후생들에게 心經과 近思錄을 강의하였다.

「院規」는 62세 때(선조 37년 1604) 玄風의 士子들에게 권고하여 임란 때 불타버린 雙溪書院(寒暄堂配享)을 지금의 위치로 옮겨 重創하였는데 그 무렵에 「道東」이란 賜額을 다시 받았다. 院規는 그 때 제정한 것이다.

「講法」과 「通讀會儀」는 64세시(선조 39년 1606) 「望雲庵」(檜淵書堂 東畔의 茅齋) 시절에 지은 것으로 난리 뒤에 鄉中의 자제들이 失學하는 것을 우려하여 마련 하였다. 이

65) 「言行錄」, 〈敎人〉, (癸未 ※(1583 寒岡 41세) 先生移居檜淵(自寒精舍移卜檜淵) 構草堂 約諸友 率門徒 爲月朔講會), 〈李厚慶〉.

「言行錄」, 〈處鄉〉, (先生在寒岡精舍時 鄉人之有志於學者 後生之稍有志尚者 合爲一撰 又於檜淵爲通讀之規 朔望會講 一月考其所讀 一年考其勤慢 春秋別爲勸懲其立議), 〈李天封〉.

때 모인 제자들이 무려 70여인이거나 되는 상황이었고 이 독서운동을 전개한지 이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鄉人이 모두 「皆通曉文字」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 때의 정경을 門人 李堉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先生晩年棄官歸鄉 深憫鄉中子弟因亂失學 遂聚鄉後生共爲通讀約七十餘人 聚會講學之儀 一依前日月朝之例 而略加增損行之 二年鄉人悉皆通曉文字 多有進就焉」(言行錄, 敎人)

위에 열거한 5가지 교학방법의 절차에 관한 교육사적 의의와 평가를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

◦〈講法〉 및 「通讀會儀」: 講席의 법도(講儀)와 講評(교육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적인 講儀와 講評은 필자의 다른 著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기로⁶⁶⁾ 이곳에서는 약하거나와 여기서는 體罰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색이라 지적될 수 있다. 평가는 대개 「大通」·「通」·「略通」·「粗通」·「不」의 5단계 또는 이곳처럼 「通」·「略」·「粗」·「不」의 4단계 평가 척도가 당시의 유행이었음을 보여준다. 매달 15일을 기하여 一講을 하는 것은 당시 난리 뒤의 사정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淸道에 살던 訥淵 丁敏道 같은 분은 九邑訓導의 직첩을 받고 한 사람의 훈도가 9고울을 순방하면서 戰後敎育에 일한 사례가 있다.⁶⁷⁾ 「通讀會儀」는 위 講法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사제간의 구체적인 예의 절차이다.

◦〈院規〉: 영남서원의 院規는 거의 대부분 퇴계가 만든 「伊山院規」를 모범으로 하였다.⁶⁸⁾ 그러나 寒岡의 道東 「院規」는 ① 書院·鄉校敎育의 一體論 ② 院長論 ③ 有司論 ④ 院生論 ⑤ 講習論 ⑥ 附屬學校「莢蒙齋」敎育論 ⑦ 擇師論 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는 白鹿洞規에서 伊山院規에 이르는 書院敎育의 典型에서 탈피하여 한국적인 개성을 여실히 나타낸 院規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寒岡書院觀은 한 편의 다른 論攷로 다룰만 하다.

◦〈契會立證〉: 鄉約의 4대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덕목과 시행규칙이 보편화된 현상은 조선시대의 일관된 사회 윤리였다. 그러나 향약의 사회교화적 윤리 실천이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고 유지시키는 民衆統治의 수단이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말하자면 鄉約의秩序는 鄉廳과 鄉任을 중심으로 하는 官權의 보조수단이고 在地 士林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를 영속화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寒岡의 「契會立證」은 鄉學契의 시행 규칙이라는 데에 일반적인 향약과 구별 된다. 序文에 있듯이 「約」의 規目은 呂氏鄉約을 따른다’고는 되어 있으나 이 「契」는 일종의 讀書契이고 扶助契이다. 그리고 「結」 부분에 있는 「선비論」은 교육적 인간상에 대한 뛰어난 章典이라 할 수 있다.

66) 丁淳睦 전제, 韓國書院敎育制度研究 X章 6節 敎授方法(講) 및 7節 敎育評價, 참조, pp.191~198.

67) 丁淳睦 역, 「訥淵先生逸稿」, 訥淵會刊, 1984. pp.42~46, (回諭九邑諸生興學文) 참조.

68) 伊山院規는 각종 院規에 대하여는 위 「書院研究」 IV~5 〈院規〉 참조, pp.76~77.

◦〈月朝約會儀〉: 鄉飲酒禮는 고을의 儒生이 모여 鄉約을 읽고 揖讓하는 법과 술 마시는 법을 지키던 선비의 잔치였다. 鄉飲酒(射)禮는 지방관이 興學의 치적으로 즐겨 사용하였는데 까다로운 「法度」는 인륜과 사회기강을 순화시키고 유지하는 교화수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또 養老思想의 고취로써 孝親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이기도 하였다. 飲酒禮 역시 坐次(齒序)문제와 더불어 失亂을 방지하는 강력한 사회교육이었던 것이다. 失行者와 過失者에 대한 포벌은 鄉飲禮가 단순한 의식이나 절차로만 끝나지 않는 구속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寒岡의 「月朝約會儀」는 향음주례의 이같은 사회교육적 功能을 인정하여 마련한 것이지만 〈임란〉이후의 사회가치관의 상실을 염두에 둘 때 그의 이러한 관심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鄉飲鄉射之禮 人雖識其名 未嘗見其禮容矣 先生蒞邑之日 使士子輩 展而行之. 優遊於禮法之場 人皆敬服於大賢之所爲 行禮時所用之器 皆不失方圓長短 尺寸分釐而作之 以後復古制 以應禮用」⁶⁹⁾

鄉飲 鄉射禮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은 그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이를 시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寒岡이 士子輩를 시켜 이를 시행하여 모범하였을 뿐 아니라 소용되는 도구 역시 古制대로 복원하였다.

3. 敎學方法的 內容

寒岡의 敎學方法的 內容이란 좁게는 그의 敎科課程觀이고 넓게는 그의 인격적 감화력의 표현이다. 이 두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가. 「敎科課程・研究觀」

旅軒 張顯光은 「寒岡鄭先生行狀」⁷⁰⁾에서

「先生幼時 自優其才 以爲吾人於宇宙間 許多事無不以爲己責則 事無大小精粗 皆不可以無學焉 至於算數兵陳醫藥風水等說 亦必究知其理 而得其大略矣 及其晚歲 一以講學著書爲專業」

이라고 한 것 처럼 그의 학문적 관심은 예사 유학자와는 달리 實用性에 주목하였다. 이는 治世經綸을 위한 儒學의 관심이지만 理氣心性論에 국한하던 당시 학자들의 학문세계와는 구별되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한강의 학문적 성격을 앞서 近畿學派의 실학적 연원으로 설명하였거니와 「大儒」라고 지칭되는 儒學者에게는 이러한 경향은 보편적인 특색으로서 濟世安民을 위한 실용적 학문이 寒岡에게만 있었던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學人으로서 寒岡의 일상은 그대로 求道者의 자세였다.

◦「每日晨興盥櫛衣冠 拜於家廟 退處書室 整几案啓書冊 對越聖賢 靜坐講習 研精覃思 玩辭求義 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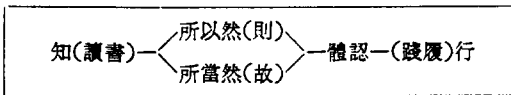
69) 「言行錄」, 〈禮學〉, (郭近)

70) 「全書」(下), p. 255.

至夜深而罷」⁷¹⁾

○「先生每日 必鷄鳴而起 明燈整坐講誦 達曙或廢燈而坐 涵養不息 時或問于侍側子弟曰 爾等之心 方思何事 方走何方 收放心 是學者第一工夫也」⁷²⁾

그의 학문은 이미 書冊을 통한 인지학습의 경지를 벗어나서 研精覃思하는 철학하는 삶이었고 涵養·收放心하는 경지였다. 이러한 학문구도의 생활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철저하였는데 晩年에 이르면서 대개 낮에는 독서하고 밤에는 사색하기를 마치 소장학자가 힘쓰듯 하였다는 것이다.⁷³⁾ 그리고 그의 공부는 단순한 앞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리적 탐구로써 이를 실천하려는 데 있었다. 도포하면 다음과 같다.⁷⁴⁾



참으로 안다는 일은 사물의 현상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事物의 「구조의 법칙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所以然之則) 이러한 원리적 구조의 법칙성을 알고 난 뒤, 삶의 현상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당위적 명제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所當然之故)라는 眞知의 志向性, 곧 윤리적 합목적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인지구조는 논리적 사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념, 가치, 권위, 학문애와 같은 價值感과의 융합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수용되고 내면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體認」이라 일컫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곧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경지이고 진리가 인간과 함께 同行하는 知行互進이다.

「讀(古人之)書 精探力踐 涵養進修 以厚根本之地」⁷⁵⁾

이렇게 하여 眞(wissen)·삶(Lebens)·됨(werden)은 성숙인격으로 조화롭게 꽃핀다. 다음으로 寒岡의 研學風情이 깃든 研究室 주변을 탐방하여 보자.

○「先生이 거처하는 방은 좌우로 書冊이 滿架하였고 <카드箱>에는 무려 수 천개의 文軸으로 가득차 있었다. 비로 참고 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어디 어디 무슨 자리에 있는 軸을 빼오라 하였는데, 한번 훑어보면 대번에 알아보아 언제 보는지 모를 지경이었다.」⁷⁶⁾

○「山泉菴은 武屹溪의 동 쪽 수십 보 거리에 있었다. 房과 마루가 각각 한칸 씩인데, 생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올라 山泉菴이라 불렀다. 선생은 이곳에서 하루 종일 危坐하여 「俯讀仰思」하

71) 「言行錄」, 〈學問〉, (崔恒慶)

72) 「言行錄」, 〈學問〉, (李 籙)

73) 「言行錄」, 〈讀書〉, (裴尚龍) 「先生癸卯還鄉時 年六十有一 終日看書繼之 以夜孜孜乾惕 如少壯剋勵者然」

74) 「言行錄」, 〈讀書〉, (郭近) 「先生於聖賢之書 無所不讀 而讀則 必求所當然所以然 而知之 知之則 輒體認於心 而爲踐履之地」

75) 「言行錄」, 〈教人〉, (李潤雨)

76) 「言行錄」, 〈學問〉, (李天封) 「先生所居之室 左右書冊滿架 盈箱無慮數千軸 時有考閱事則 皆領略其所在處 抽卷一開 而輒見 未嘗遲疑披閱」

곤 하였다.」⁷⁷⁾

- 「저술하거나 독서를 하는 여가에는 陶然히 스스로 즐기는 雅趣가 있었는데 古人의 말을 늘 삼위유기도 하고 벽 위에 적어 걸어 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深山 가운데 土屋을 짓고, 사립으로 문을 만들고 거문고와 缶을 두드리고, 성현의 모습을 노래하니 이러한 즐거움에 언어감을 잊노라” 하였다.」⁷⁸⁾
- 「先生께서 武屹에서 나오셔서 寒岡亭上으로 나오니 바야흐로 新月은 서늘에 걸려있고, 북두칠성은 난간에 빛겨 있는데, 소나무 그림자 사이로 거니니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噴石하는 듯하였다. 뒷부리는 시내 위에 천 척이 넘도록 서 있는데 「寒岡」이라 한 것은 이곳의 「四面蒼松 直立森森」의 「岡」과 「歲寒然後知松栢之後彫」에서의 「寒」을 따온 것이라고 말씀하였다.」⁷⁹⁾
- 「(……)先生께서 사립을 나와 中堂에 散步하시니 陶然히 自樂하시는 모습이 있었다.(제자가) “오늘 밤 선생님의 모습이 淸點이나 濂溪와 흡사 합니다”하니, 선생께서 “나의 학문이 아직 모자라는데 그대는 지나치게 말하지 말라” 하였다.」⁸⁰⁾

이렇게 樂山水하면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학문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辛亥以前七八年」이 결정이었다. 그의 나이 62~3세에서 69세까지의 武屹時代이다.⁸¹⁾ 武屹은 자연경관이 幽勝할 뿐 만아니라 이곳을 찾는 손님 또한 비교적 적어서 모처럼 맞이한 閑暇였다. 辛亥年(光海君 3년, 1611) 이후에는 이듬해에 八莒縣 蘆谷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 光海 5년(1613)에는 金梯男과 永昌大君의 獄事가 일어나자 在野의 寒岡은 분연히 붓을 들어 光海君의 「廢母殺弟」의 불륜을 꾸짖는 疏劄을 올리기 시작한다. 더구나 光海 6년(1614)에는 蘆谷精舍에 불이나서 저서와 장서의 대부분을 소실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寒岡의 독서방법은 精讀이 위주였으나, 일단 理會한 책을 저술에 인용할 때는 「一瞥數行」하는 요령이 있었고 뒷날에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곳은 반드시 傍記하여 參證·攷證 토록 하였다.⁸²⁾ 그러나 이러한 「要領」이 그대로 연구 태도의 “要領主義”로 흐르지 않은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의 연구 태도는 시종 일관 엄숙주의·경건주의에 있었다.⁸³⁾

基本教材와 經典에 대한 寒岡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77) 「言行錄」, 〈學問〉, (裴尙龍)「山泉菴在武屹溪東數十步 房廳各一間 有泉湧出岩罅取以名菴 終日危坐 俯讀仰思 常以有德果行自期」

78) 「言行錄」, 〈學問〉, (裴尙龍)「纂述裏集之暇 輒讀聖賢經傳 陶然有自得之趣 常誦古人之言 而書諸壁上曰 深山之中 築土爲宇 編蓬爲戶 彈琴鼓缶 以詠先王之風 亦足以樂忘死矣」

79) 「言行錄」, 〈雜記〉, (孫處訥)「先生自武屹出山 迎入寒岡亭上 侍話良久 時新月掛西 星斗闌干 松影婆娑 川聲噴石 如坐中天之上矣 岡記川上幾至千尺 而謂之 寒者 四面蒼松 直立森森 故取 歲寒之義 此乃先生之解也」

80) 「言行錄」, 〈學問〉, (裴尙龍)「(……)先生開戶而出散步中堂 陶陶然有樂之趣 (尙龍)問曰 先生今夜莫是曾點風俗 濂翁光霽底氣象乎 先生曰 吾嘗學焉而未能 君言無乃太過乎」

81) 「言行錄」, 〈學問〉, (裴尙龍)「武屹非但洞壑之幽 泉石之勝 賓客罕至 應接頗歇 搜閱書籍 一意專精 以是辛亥以前 七八年在武屹時多」

82) 「言行錄」, 〈學問〉, (裴尙龍)「每閱諸書 一瞥數行 而至義理奧繁處 則必旁搜他書 參攷互證 以極其歸趣」

83) 「言行錄」, 〈持敬〉, (李筍)「先生雖在燕居之時 惰慢之容不設於身體 未嘗頃刻欹倚 未嘗頃刻解衣 時或閉目危坐凝然不動 望之若泥塑人 若不可親者 而即之溫溫 如在春風之中矣」

- 〈小學〉:「爲學急務 當先致力於小學 然後四書 心經·近思錄·朱子大全等書 可以次第理會」⁸⁴⁾
- 〈小學〉:「(先生嘗撫背教之曰) 人生八歲 皆入小學 汝能知此義否 蒙養不端長不免爲伎倆人 又謂先君曰 教人當自兒時始」⁸⁵⁾
- 〈大學〉:「問大學一書 何者爲最初入頭處 先生曰毋自欺三字 是吾平生受用者」⁸⁶⁾
- 〈論語〉:「論語之書 辭意精明 苟能玩其辭釋 其意則 不但爲治身心之功用 亦是通文理之蹊逕 昔我與一友生 受此書於德溪先生 友生當初文理未通 讀了後文理大達 此吾親見 讀此書之驗也」⁸⁷⁾
- 〈論語〉:「嘗受論語於先生 先生曰 若知論語之爲書乎 乃學者入道之門戶也 讀之使人慈良之心藹然而生 欲善其身者 舍是書何以哉 是故 朱門訓學者 專以是書 爲初學之指南 今之學者 是書者 但區區於音釋句讀之末 爲他日科舉之資 而無復留意於聖人設教之才 作自家收斂身心之地可良歎也」⁸⁸⁾
- 〈四書〉:「先生之學 博求經傳 得其大意 語孟庸學 尤所致力 至於靜字敬字上工夫 益加勉勵」⁸⁹⁾
- 〈朱子大全〉:「先生於濂洛關閩之書 無不該通」
- 〈心經〉:「朱子語類·大全 講明之 功益深切 直西山心經 尤所尊信故 晚年編集發揮 以受後學有志於學者 不可不考究」⁹⁰⁾
- 〈心經〉:「有學者請學心經 先生曰 心經固好 然於初學者 小學書尤緊切」⁹¹⁾
- 〈朱子大全·語類·語錄·近思錄〉:「先生一生用功 專取法於朱子故 於大全 語類 近思錄諸書 尤爲致力 每讀其書 如親警欬 至於講道棲息之地 亦莫不想像而興懷」⁹²⁾
- 〈朱子大全 等〉:「先生嘗讀朱子大全·語類等書 至忘寢食曰 孟子云 理義之悅我心 猶藟藟之悅我口 吾於此書亦云 李先生(退溪先生)在洛中 始得見此書 便解官載而歸 平生得力 皆在此書 如此而後 方可謂讀書 以餘觀之 退溪朱子後一人也 先生退溪後一人也」⁹³⁾

나. 「教育感化力」

교육감화력은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신뢰」와의 교호작용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승으로서의 權威이다. 참된 권위에서 참된 교육적 충고가 가능하다. 忠告란 교육자적인 의도에서 「한 낮은 삶에 대해 外部로부터 갑작스레 干涉해 들어가는」⁹⁴⁾ 敎訓·警告·稱讚·責望·認定 따위다. 「칭찬」과 「책망」은 서로 동등한 對立으로 비교될 수 있다. 칭찬은 같은 행동의 反復을 격려하는 것이고, 책망은 같은 행위의 반복을 만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忠告가 權威者인 인격이나 교육애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올 때 한층 格調높은 교육적 감화력을 형성한다. 따라서 교육적 감화력으로서의 權威는 倫理的 權威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교육감화력의 강도는 권위 있는 교사와 이러한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제자)의 自由意志가 동등한 힘으로 맞서야 한다. 스승과

84) 「言行錄」, 〈敎人〉, (李潤雨)

85) 「言行錄」, 〈敎人〉, (朴明胤)

86) 「言行錄」, 〈敎人〉, (李天封)

87) 「言行錄」, 〈敎人〉, (李 壘)

88) 「言行錄」, 〈敎人〉, (李 壘)

89) 「言行錄」, 〈學問〉, (崔恒慶)

90) 「言行錄」, 〈學問〉, (文 緯)

91) 「言行錄」, 〈敎人〉, (崔恒慶)

92) 「言行錄」, 〈學問〉, (李 堉)

93) 「言行錄」, 〈讀書〉, (李 節)

94) Bollnow, 앞의 책, pp. 62~68.

제자와의 이러한 ‘맞섬’이 곧 <만남>의 교육적 현상일 수 있다.

참된 교육적 권위는 사제 간의 내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맞섬은 融和이고 창조이다. 옛 교육에서는 사제 간의 이러한 권위와 자유가 교육적 사랑으로 융화될 수 있었고 또 창조될 수 있었다. 오늘의 교육적 위기 현상은 이러한 권위의 위기 현상과 관련된다.

寒岡의 교육자적 권위는 78년 간에 걸친 그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듯이(I, 寒岡의 教育生涯評釋 참조) 개인적 양심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다. 旅軒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릇 眞儒의 事業이란 「平實廣大」한 것이므로 一節一藝로 成名하는 것이 아니다.⁹⁵⁾ 한강은 聖賢全體大用之學을 追古하면서 가까이는 退溪를 親接하여 그 準的으로 하였고 멀리는 朱晦菴을 模範으로 하였다. 그 자신 권위롭게 된 것은 이같은 권위를 수용하고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권위의 이러한 受授現象이 단순한 복고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 점이 바로 교육감화력의 미래지향성이다.

寒岡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한 것은 학문을 통한 지식이 아니라 그 실천이었으며 「發憤立志」→「勇猛篤實」→「深體力行」으로서의 발전이었다.⁹⁶⁾ 이것은 儒學教育의 기본 강령이기도 하다. 立志란 강한 학습동기 유발이고 교육목표의 설정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인 人間教育의 場으로 내면화 되지 않는다면 下學而上達 될 수 없다. 진리는 高遠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日用하는 凡百事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는 그것이 現實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스스로 진리적 존재로 實現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儒學은 人間學이고 實學이다.

寒岡은 충고하기를 讀書는 反覆成誦→〈沈潛玩索〉 하여야만 自得할 수 있다고 하면서 古學(올바른 학문)과 今學(잘 못된 학문)으로 구별하여 설명한다.⁹⁷⁾

「讀書須要 反覆成誦 沈潛玩索 以自得焉 古人云 千周萬遍 其義自見 今之學者 却不要熟只恁麼 草草看過 自爲足是 是雖句讀之學 亦且不及於古人也」

古·今學에 대한 寒岡의 對比는 立志·篤實·力行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제자들의 말 한마디라도 때로 過不及이 발견되면 그는 서슴 없이 規箴으로 올바르게 자리잡도록 하였으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그마한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곧장 바로 잡아 주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비록 「一善一藝之人」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학문적 자세를 지니도록 하였다. 이는 寒岡이 제자들의 내면적 가치 수용을 확신하

95) 近刊의 「寒岡全集」에는 旅軒 張顯光 자손과 寒岡 자손 간의 이른바 「寒旅是非」로 寒岡言行錄에서 旅軒의 기록이 삭제되어 있다. 이 기록은 舊本「寒岡先生文集」에서 인용한 것이다. 「夫眞儒事業 平實廣大 不止於一節一藝之成名 不貴乎別法異術之反常也 於是必欲追古聖賢全體大用之學 而爲之則焉故其志則未嘗自安於小成矣 其在吾東所親接則以退溪爲準的 其在宋儒之大成則以晦菴爲模範 所以制心律己 居家在官事君臨民者一惟二先是式焉」

96) 「言行錄」, 〈敎人〉, (李天封)(先生敎人 不以讀書綴文爲貴 惟以灑掃應對 進退中規爲先) 「言行錄」, 〈敎人〉, (崔恒慶)(先生嘗曰 學者須是 發憤立志勇猛篤實 深體力行始得)

97) 「言行錄」, 〈敎人〉(崔恒慶)

있기 때문인데 그는 이것을 일컬어 「變化氣質」이라고 하였다. 인간 형성의 變化氣質을 믿는다는 것은 教育陶冶論에 있어서 기본 전제이다. 이러자면, 교육자의 끊임 없는 교육감화력이 뒤따라야만 가능하다. 門人은 한강의 부단한 교육감화력을 「懇懇惻惻 誘掖不倦」이라고 표현하였다.⁹⁸⁾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면 資品이 비록 낮다고 하더라도 교육 성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寒岡의 스승됨은 스스로의 사람됨에 있어서 模範教育・標準教育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擇師가 교육에 있어서 관건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신을 남의 스승이라고 인정하고자 아니 않았다.⁹⁹⁾ 문학생들에게는 諸友・朋徒라고 용어를 사용하였으며(同志則朋 同門則友) 진리를 「함께 哲學하는」 동반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진리를 함께 哲學하는 길은 개성적 표현의 조화로운 결과이기 때문에 作黨을 하여 선언되는 것이 아니다. 君子는 和而不同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홀로 자득하여야만 진정한 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⁰⁾ 그리고 이러한 爲學之方은 「古人已行之法」의 표준(規)과 모범(範)에 있다. 그런데 古人已行之法이 '과거'의 時間意識속으로 복귀하여야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현재'의 시간성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¹⁰¹⁾ 유학 실천의 시간성을 단순히 과거지향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여기서 과거는 이미 시간적으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의 기억 속에서 오늘의 시간 속으로 目擊될 수 있고, 또 내일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形成으로 期待될 수 있다. 시간성의 三重構造를 갖는다는 뜻이다.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의 현재화이고 미래의 현재지향이랄 수 있다.

寒岡은 斯文을 興起시키고 後學을 訓迪시키는 일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었다.¹⁰²⁾ 그가 자신을 스승이라고 높인 적은 없다 하여도 맡은 책임은 충분히 통감한 것 같다. 스승의 자격을 自認하는 일과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痛感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다. 위에서 말한 바 있듯이 참된 스승은 그가 스승임을 그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 시대의 책임을 질 줄 아는 교사의 존재는 어느 때이고 필요하고 또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寒岡敎室은 「坐不能容」할 정도였는데 그는 門人教育에 있어서 個性教育・能力別教育을 게을리하지 않았다.¹⁰³⁾ 더구나 그를 찾는 門徒에게는 성실과 예절을 다하여 하나의

98) 「言行錄」, 〈敎人〉, (郭近)「學者之一言 或過不及 輒加規箴而歸的 執事之一事 毫髮失當 必使即改而得正 雖一善一藝之人 亦許而親近之優容 開導力勸讀書 冀其有得於爲學之方 而變化氣質 以踐孝友之實 其所以懇懇惻惻 誘掖不倦者 何可量也 是以學者之資稟 凡下雖學未大得趨向已定 固守本分則皆是」

99) 「全書」(上) 讀集, 卷五, 「播論安東諸生文」 p. 312.

(府中儒生有意心學 方設通讀之會 至爲嘉尚 惟恐老守 自無得力之地 將不能導迪 諸賢夙夜兢惕 而愛慕諸賢之心 則又不能自己焉)

100) 「言行錄」, 〈學問〉, (文緯), (先生曰 學必講諸古 而明道必行之己而 得徒有聞見之富 而不能有諸己者 說夢衣被之類 亦奚以爲須要於 幽獨得肆之地 心術隱微之時 不敢有一毫放過 始可謂學)

101) 위와 같은 句, (先生之學 尤爲致力於人所不見之, 而英華之發 闡然而日章故 靜而持養之方燕息之節 動而聲氣之發步趨之辭 莫不遵古人已行之法 而皆有規範 不差毫釐)

102) 「言行錄」, 〈敎人〉, (李穡)(先生以興起斯文 訓迪後學 爲己任)

103) 위와 같은 句(敎人), (李穡)(遠近聞風而慕 執經升堂者 坐不能容 各因其材 敎訓不倦)

독립된 인격으로 맞이하였다.¹⁰⁴⁾ 이것이 그의 師道가 갖는 평범한 秘法이었던 것이다.

그의 문하를 찾는 사람에게 「各因其材」로 개성별·능력별 교육을 시키는 한편, 그는 또 「適時適所」의 교육을 시행하였다. 예컨대, 자식된 사람에게는 〈孝敬〉을, 관리들에게는 〈忠勤〉을, 志學者에게는 〈道理〉를 강조하여 庸瑣한 鄙夫라 할지라도 감발되지 않는 바가 없었다.¹⁰⁵⁾ 이를 도표하면 다음과 같다.

出入從游之士 (門下人)	<table border="1"> <tr> <td>孝</td><td>敬</td><td>(有父兄者)</td></tr> <tr> <td>忠</td><td>勤</td><td>(有官職者)</td></tr> <tr> <td>道</td><td>理</td><td>(有志學者)</td></tr> </table> 庸瑣鄙夫 (平凡人) 賢不肖之所	孝	敬	(有父兄者)	忠	勤	(有官職者)	道	理	(有志學者)	從親 開導 婉曲 巨細 精粗
孝	敬	(有父兄者)									
忠	勤	(有官職者)									
道	理	(有志學者)									
教育對象	教育目標	教育方法									

위의 교육목표 〈孝敬·忠勤·道理〉는 아래로는 평범한 인간으로부터 위로는 士大夫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루 갖추어야 할 덕목이지만, 강조점에 따라 교육의 역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덕목을 기르는 寒岡의 教學方法의 내용이 곧 〈從容·親切·開導·婉曲·巨細·精粗〉의 여섯가지로 나뉜 것이다.

위의 6가지 가운데 〈巨細·精粗〉는 학문연구 방법론으로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寒岡 門人, 敬堂 張興孝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평을 하였다.¹⁰⁶⁾

「先生處事 周詳一事一物之細, 一言一行之微 一動一靜 一語一默之間 必纖謹密 未嘗放過」

寒岡의 이러한 논의는 退溪에 의하면 「周悉無偏」이라는 것인데¹⁰⁷⁾ 종합적이고 연역적 연구는 巨視의으로, 분석적이고 귀납적일 때는 微視의으로 성찰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된다. 寒岡의 교육감화력은 고압적인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화력의 소산이다. 인간적이고 친화적인 권위가 상실되는 데서 고압적인 권위주의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교화의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4) 「言行錄」, 〈持敬〉, (文緯)(先生於人待之以誠 而接之以禮 小無弛慢忽略之色 乃至搢紳爵位者 則恭謹之容 迎接之禮 少無懈意 終日相對 無有所虧)

105) 「言行錄」, 〈教人〉, (裴尚龍)(出入從游之士 有父兄則語之以孝敬 有官職則以忠勤 志學問則語之以道理 至於庸瑣鄙夫 亦莫不勉之 當務從容開導親切婉曲巨細精粗 皆出至誠 此賢不肖之所以各盡其心也)

106) 「言行錄」, 〈資品〉

107) 退溪의 「四七往復書」, 〈答奇存齋 四端七情分理氣辨〉

—(“같은 가운데서도 다름이 있음을 알고

다름 가운데서도 같음이 있음을 보라.

나누어 둘이 되어도 일찌기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합하여 하나가 되어도 서로 섞이지 아니 한다.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한 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就同中而知其有異 就異中而見其有同 分而爲二 而不害其未嘗離 合而爲一 而實歸於不相離 不爲風悉而無偏也)—(丁淳睦, 앞의 「退溪教學思想研究」, p. 166. 참조)

◦〈적절한 비유법〉: 어느 門生이 잃어버린 매(鷹)를 급히 찾으려 나가는 것을 보고 寒岡은 이렇게 말하였다. “求放心하는 정성이 求放鷹하는 간절함과 같다면 그래도 어찌 옛 학자처럼 되지 않겠는가?”¹⁰⁸⁾

◦〈적절한 직유법〉: 門生이 벼들과 함께 어느날 낚시를 가자고 약속을 하였는데 마침 그날 비가 많이 와서 개울물이 漲溢하였으므로 門生은 낚시가 이러니 벼들이 오지 않겠지하고 낚시가 개이기를 기다렸다. 이 말을 듣고 寒岡은 이렇게 말하였다. “벼과의 약속은 風雨를 가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니라.”¹⁰⁹⁾

◦〈용기 있는 자기 수정〉: 門生의 問目에 대한 寒岡의 답이 잘못된 점을 지적 받으면 즉시 欣然하게 수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만약 그대가 질문 하지 않았다면 誤答을 하고야 말았을 것이네” 하면서 즉각 그 조목을 削去하고 改紙하여 다시 써보냈다.¹¹⁰⁾ 한강의 이러한 敬謹한 태도는 남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子弟들에게 주는 편지 글에서조차 한 글자를 잘못 쓰면 반드시 그 글자를 칼로 도려내고 그 자리에 뿔질을 하여 다시 써보낼 정도였다.¹¹¹⁾

위와 같은 寒岡의 교육감화력은 드디어 一代의 儒宗으로 추앙받기에 이르렀으며, 그의 行衿은 鄉黨의 사표로서 비록 暴慢之人이라도 非禮를 저지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¹²⁾

「先生安貧力學 期以成德 鄉里之間 老老長長曲有禮貌賢愚貴賤 皆獲其歡心 雖有暴慢之人 不敢以非禮于於先生也」

IV. 맺 는 말

寒岡은 선조~광해군 시대의 흑심한 士禍·戰亂·黨爭 시대에 그 생애를 보냈으며, 성리학적 秩序觀이 지배하던 시대의 官人學者였다. 따라서 그의 생애 역시 그가 살던 시대 정신 및 사회상과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士禍와 黨爭에 연루되어 被禍한 적이 한번도 없이 80가까운 性命을 보전할 수 있었으며, 官人으로서의 대부분 外職을 거치면서 安民治道の 치적을 쌓을 수 있었고 內職의 경우에도 비교적 淸要職을 맡았다.

소년 시절(13세)의 일이지만, 州學에서 吳德溪에게 수업할 때, 하루는 동료 학생이

108) 「言行錄」, 〈學問〉, (裴尙龍)(家僮來報失鷹 欲借僮返 堤料理授覓 先生問何以歸歸 對之以實 先生正色曰 使君求放心之誠 常如求放鷹之切 則何患不如古之學者乎)

109) 「言行錄」, 〈教人〉, (裴尙龍)(先生嘗在檜淵 尙龍與諸友約以某日齋會漁釣 及期而雨下如注 川流漲溢 尙龍意諸友不來 待請來往 先生問曰 某日聞諸君期會 而何以不赴 對以雨 先生曰 與朋友有約 不廢風雨可也)

110) 「言行錄」, 〈雜記〉, (張興孝)(先生答或人問目中有可疑處 請問曰某處可疑 先生即欣然曰 若非君問幾誤答 即削去其條放紙以送 其擇於薊薈如此)

111) 「言行錄」, 〈持敬〉, (李壘)(先生每事必敬謹周詳 雖於子弟閤書札 一字之訛 必刀改而更書之)

112) 「言行錄」, 〈成德〉, (李壘)

「賤人」한 사람을 학교에 데리고 왔었는데 이를 본 寒岡이 그 賤人을 보고 꾸짖기를「此地尊嚴 非此輩所敢入」이라 하면서 내쫓아버리라고 한 적이 있다.¹¹³⁾ 이것을 듣고 德溪는 「愈益奇之」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少年 寒岡은 이처럼 上下貴賤의 고정적인 계급관을 철저히 몸에 밴채 출생하였던 것이다. 이 삼화는 寒岡研究의 한계성을 단적으로 表象한다. 말하자면 寒岡 역시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정신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I. 寒岡의 教育生涯, II. 寒岡의 教學目的論, III. 寒岡의 教學方法論의 세 방면의 긍정적인 측면을 논의하였다.

오늘날 個人研究의 폐단이 주로 家門研究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종의 개인예찬 연구로 시종하는 경향은 하루 빨리 불식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인 줄 안다. 그러나 教學研究는 어쩔 수 없이 傳統의 긍정적 발굴과 그 정리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寒岡의 教學思想이 우리 교육사에 끼쳐주는 의의는 바로 價值觀의 혼란을 극복하려는 教學意志에서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教學의 方法論的 原理가 空疏한 이론으로 끝나지 않은 實踐教育에 있었음도 傳承되어야 할 일이다.

그는 관계에 첫 발을 들어놓을 때(昌寧縣監) 白衣로 召對한 자리에서 宣祖가 물기를 그대의 고을에서 무슨 일부터 착수하려는가? 하였다. 이에 대하여 寒岡은 주저 없이 답하기를 그것은「教育」이라 하였다.¹¹⁴⁾ 그리고 國亂을 당하자 감사와 수령은 거의 다 도망을 쳤어도 홀로 列邑에 檄을 돌려 의병을 招募하여 분전하였다.¹¹⁵⁾

그리하여 그에게「鄭述道學實是李滉後一人」이라든가「學問之醇正 造詣之精深 論議之正當 去就之明白 五賢後一人而已」¹¹⁷⁾ 라는 평가가 마침내 一國의 公論으로 되었던 것이다.

寒岡을 일컬어 禮學者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儒敎治道の 근간인 禮 역시 化風成俗이라는 教學과 관련된다. <參於天地>하는 인간의 도덕적 규범은 六德(仁·知·和·信·禮·義)의 교육에서 나온다. 이러한 도덕적 품성을 <德>이라 하고, 덕을 갖춘 성숙된 인격을 君子라하고 다시 그 최고실현자를 聖人이라 한다. 寒岡의 禮秩序確立은 도덕적 품성의 최고 성숙을 지향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뛰어난 禮敎論者였으며 그 실천인이었다.

寒岡은 불과 43편의 詩를 남긴 분으로서 스스로「愧我平生不作詩」¹¹⁸⁾라고 할 정도였으나 그가 남긴 詩 가운데「가야산을 바라보며」라는 詩가 있다.¹¹⁹⁾

113) 「年譜」, 明宗 10年.

114) 「言行錄」, <居官>, (李厚廈)(先生之拜昌寧也 上問爾之縣當先何事 對曰臣學淺才劣 恐未能有爲而所願則欲先學校焉)

115) 「言行錄」, <忠義>, (崔恒慶)(辛卯拜通川郡守時 烏夷構亂列郡互解 三京失守 大駕播越 監司守令 皆竄伏山谷 先生以爲守土之臣 當死於封疆 遂倡義討賊 移檄列邑 血誠開諭 召集精銳 出入賊藪 不避艱險)

116) 「全集」(下), 附錄, 「請從祀文廟疏」

117) 「全集」, 祭文 (李潤雨)

118) 寒岡의 詩는 內集에 28首, 續集에 15首, 합하여 43首가 있다. 이는 退溪詩 2천여수와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위의 詩는 寒岡先生文集 卷一 詩의 첫 首이다.

119) 「全集」(上) 續集, 卷一 詩, <贈別金東岡>

「가야산은 전신을 드러내지 않고
한 모서리만 흐릿하게 내보이나
천지 조화의 숨은 뜻을 알겠노라
天機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임울.」

(未出全身面 微呈一角奇 方知造化意 不欲露天機)

「가야산」은 마치 寒岡 자신을 두고 읊은 것 같다.

한 사람의 사상을 재현시키고 정리하는 작업은 언제나 연구자의 유리한 「一角」만을 微呈하기 쉽기 때문이다. 더구나 옛 선비의 사상은 天機와 相交하는 天人合一論의 세계관·인간관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경지를 體認하기 전에는 완전한 사상적 지도를 그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이 이른바 ‘입술과 손의 分裂’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寒岡의 敎學思想은 이 점에 있어서 이 시대의 잘못된 교육관을 바로잡는 處方箋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1985. 2. 12)